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 천안함 사건에 관한 방송보도 비교연구

- 방송 3사 메인뉴스 보도문장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金 熙 哲

2011년 8월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배경 .....	1
II. 선행연구 .....	4
1. 자연 재난 관련 선행연구 .....	7
2. 인적 재난 관련 선행연구 .....	9
3. 사회적 재난 관련 선행연구 .....	11
4. 기타 재난 관련 선행연구 .....	13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20
1. 연구문제 .....	20
2. 연구방법 .....	21
1) 연구대상 및 기간 .....	21
2) 연구방법 .....	21
(1) 보도문장의 내용에 따른 분류 .....	22
(2) 보도문장의 사실 확인 여부에 따른 분류 .....	25
(3) 보도문장의 취재원 인용 여부에 따른 분류 .....	25
(4) 기간별 추이 .....	25
IV. 연구결과 .....	27
1. 기술 통계 .....	28
2. 유목별 세부 설명 .....	29
3. 사실 확인 유무 .....	61
4. 취재원이 있는 경우 .....	65
5. 유목별 사실 확인 여부 .....	68

V. 결론 .....	71
1. 요약 및 논의 .....	71
2. 한계 및 제언 .....	73
□ 참고문헌 .....	74



## 【표 목차】

<표 1> 1990년 이후 재난 유형별 재난보도 관련 선행연구 .....	17
<표 2> 유목별 보도문장 현황 .....	28
<표 3> 사건 행위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31
<표 4> 사건 묘사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35
<표 5> 방송사 의견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38
<표 6> 원인 규명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41
<표 7> 책임 문제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44
<표 8> 정계 동향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47
<표 9> 차후 대책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51
<표 10> 사후 영향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54
<표 11> 실종자·유가족 동향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57
<표 12> 기타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60
<표 13> 사실 확인/미확인 보도문장 전체 통계 .....	61
<표 14> 사실 확인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62
<표 15> 사실 미확인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63
<표 16> 취재원 인용시 사실 확인/미확인 전체 통계 .....	65
<표 17> 취재원 인용시 사실 확인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66
<표 18> 취재원 인용시 사실 미확인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	66
<표 19> 유목별 사실 확인/미확인 전체 통계 .....	68

## 【그림 목차】

<그림 1> 천안함 침몰사건 보도 과정 중 오보에 관한 논란 .....	6
<그림 2> 사건 행위 기간별 추이 .....	32
<그림 3> 사건 묘사 기간별 추이 .....	35
<그림 4> 방송사 의견 기간별 추이 .....	38
<그림 5> 원인 규명 기간별 추이 .....	41
<그림 6> 책임 문제 기간별 추이 .....	44
<그림 7> 정계 동향 기간별 추이 .....	48
<그림 8> 차후 대책 기간별 추이 .....	51
<그림 9> 사후 영향 기간별 추이 .....	54
<그림 10> 실종자·유가족 동향 기간별 추이 .....	57
<그림 11> 기타 기간별 추이 .....	61
<그림 12> 사실 확인/미확인 보도문장 비교 .....	62
<그림 13> 사실 확인 보도문장 기간별 추이 .....	63
<그림 14> 사실 미확인 보도문장 기간별 추이 .....	64
<그림 15> 취재원 인용시 사실 확인/미확인 비교 .....	65
<그림 16> 취재원 인용시 사실 확인 기간별 추이 .....	66
<그림 17> 취재원 인용시 사실 미확인 기간별 추이 .....	67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배경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sup>1)</sup>은 ‘위험’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데서 비롯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사람들이 그 반복성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위험’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과 관련하여 정부기관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처방식을 요구하게 된다고 한다. 정보화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에도 산업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과거에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요소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의 가장 큰 속성일 것이다. 자연적 재난·재해 및 인위적 대형사건·사고가 빈발하는 위험사회(danger society) 혹은 모험사회(risk society)의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분단국이라는 안보적 상황 등이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과 같은 해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비롯해서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및 각종 자연재해 등 여러 유형의 대형 위기·사건(사고), 재난상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대형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 시 방송보도의 역할은 재난 등의 상황을 초기에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2010년 3월 26일, 서해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전함인 천안함이 원인불명의 사고로 침몰되어 함선과 함께 그 안에 승선해 있던 군인 중 46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상과 방송 3사의 메인뉴

1) 울리히 벡(Ulrich Beck·67) 교수는 현재 독일 뮌헨대학 사회학 교수로 ‘위험사회’(1986)라는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 이론에 ‘위험’ 개념을 추가했다. 근대화의 성공과 경제적 풍요가 동반하는 대형 사건사고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스에서는 이를 연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재난보도는 “특정한 시점에 발생되어 특정지역에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인재 또는 자연적 재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보도는 단순히 재난 상황 자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대피 등 피해 증가를 막기 위한 통제기구의 정보전달과 유사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 역할까지를 포함하는 언론의 보도라고 할 수 있다(박동균, 2009). 재난 발생 초기에 국민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실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재난보도의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의 메인뉴스가 해당 사건을 다루는 내용 및 방식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건 초기에 침몰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실종자 수색작업 역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원인 및 실종자 안위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sup>2)</sup>나 오보가 수차례 발생하고, 지상파 방송 3사 메인뉴스 간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러한 방송보도의 태도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대형 사건·사고 보도나 재난 보도로써 적절하였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의 경우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보도행태가 일반 사건·사고 보도와는 차별적이어야 했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의 다매체 환경 속에서도 방송은 여전히 가장 보편화된 매체이자 영향력 있는 매체이다. 신속성과 광범위한 전파성을 갖고 있는 방송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대형 위기·사건(사고)이 발생하였을 때 그 영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지상파 방송 3사 메인뉴스 보도기사의 문장 분석을 통해 방송 3사간 해당 사건을 다루는 보도 내용 및 취재 방식의 차이점 등을 밝혀 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2010. 3. 27(토)~2010. 5. 25(화)까지 60일 동안 지상파 방송 3사 메인뉴스의 해당 사건 관련 보도 문장들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해당 취재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2) 명확한 근거와 그에 기반을 둔 신중한 검토 없이, 추측만으로 인물 혹은 사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예측을 진실처럼 보도하는 것.



있는지와 출처를 분명히 밝혀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우리 방송의 재난보도 실상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사안 발생 시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선행 연구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사건이 종결된 이후까지도 국가적 대형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고 언론매체 역시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수많은 보도 기사를 생산해 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핵심적인 보도 기사들도 있었던 반면, 미확인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에 기인한 오보와 이에 따른 정정보도 역시 다수 존재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적 ‘대형 사건·사고’나 ‘재난’ 발생 시 언론과 방송보도의 역할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언론계 안팎에서 등장하기도 했다.

재난 사건과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창현·김성준(2008)은 재난 상황에서 언론은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뉴스제공과 인근 지역 또는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대민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재난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호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sup>3)</sup>

그러나 재난보도의 특성상 언론사들은 속보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오보가 생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후 언론사 간에 이를 무분별하게 인용하여 오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 보도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오보 중 하나로, 인천과 경기 일부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OBS가 2010년 3월 31일에 첫 소식으로 “천안함 폭발 사고로 실종된 40여명의 승조원 중 시신 4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천안함 함미를 수색하면서 승조원 4명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안다”는 해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뉴스 보도로 인해 사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다. 뉴스가 방송된 후 국방부에서는 곧바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명백한

3) 박동균(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본 재난보도의 문제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권 5호. p. 243 재인용

오보”라고 반박하면서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했고, “천안함 실종자의 시신 4구가 발견됐다는 OBS의 보도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초기 OBS는 군 당국의 오보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OBS의 김석진 보도본부장은 “현직에 있는 군 관계자가 제보한 내용이고 다른 관계자까지 취재해 보도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오보라고 밝혀진 것은 없다. 상처를 입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할 뿐이지, 취재가 잘못됐다거나 오보를 인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식 조사 발표에 따라 오보임이 밝혀지자, 4월 5일에 “실종자 4명 숨진 채 발견’ 보도에 대해, 해군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해왔다”며 “결과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만큼,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여 바로 잡는다”고 사과방송을 내보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4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sup>4)</sup>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OBS 측에 ‘권고’ 조치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다.<sup>5)</sup>

이러한 오보의 생산과 확대에 대한 질타와 반성은 언론계 내에서도 그 목소리가 높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이어진 오보 소동에 대해 1993년 10월에 발생했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당시의 승선 인원 중 한명이었던 백운두 선장의 생존과 관련된 오보 소동의 경험을 사례로 들며 천안함 침몰 사건 보도 과정에서의 오보 확대와 재생산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경우도 있었다.<sup>6)</sup> 또한 공공성과 공정성을 표방하는 지상파 방송에서도 추측성 제보를 기반으로 한 오보를 생산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 등을 포함하여(도형래, 2010), 언론의 오보 양산에 대한 쓴 소리가 줄을 이었다.<sup>7)</sup>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추측성 오보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

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PD저널. <OBS ‘실종자 시신발견’ 오보 논란> 2010년 04월 01일. 김도영 기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20#>

PD저널. <OBS ‘천안함 실종자 시신발견’ 정정보도> 2010년 04월 06일. 김도영 기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73>

6) 세계일보. <[세계광장] ‘백 선장 오보’의 악몽을 기억하는가>. 2010년 04월 01일. 박희준 사회부 차장.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00401004255&cid=>

7) 미디어오늘. <집단적 오보는 실수가 아니라 나쁜 습성이다>. 2010년 6월 24일.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85>

서 다수 존재했으며 방송보도에서는 ‘자체 결함설’, ‘북한 도발설’, ‘유실 기뢰설’, ‘원인미상설’, ‘암초에 의한 좌초설’, ‘원인을 알수없는 외부충격설’ 등으로 대표되는 여러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했다(도형래, 2010).

<그림 1> 천안함 침몰 사건 보도 과정 중 오보에 관한 논란8)



**1번 링크성분, "국내산 아니다" 언론사 오보?**  
 구속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와 합조단은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유언비어... 오보가 똑같을 수 있는가. 앞으로 정부에서 **천안함**에 관한 오보(허위사실, 유언비어)를 내보낸 SBS와 중앙일보에...



**"실종자 4명 사망으로 발견! OBS, 천안함 '오보 논란'...일파만파"**  
 [ OBS(경인TV)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오보 논란에 휩싸였다. OBS는 31일 밤 "**천안함** 실종자 46명 중 4명 이... 적극 부인하는 등 또 다시 오보 파문이 일었다. OBS는 이날 밤 속보를 통해 "**천안함** 폭발 사고로 실종된 46 명의...

**실종자 가족은 '오보' 탓에 멀들어 간다**

각 언론사에 당부했다. 이 같은 방송사들의 오보는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6일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천안함** 침몰 이후 구조작업이 본격화되자, 이와 관련된 오보도 적지 않았다. "배에..."



**"천안함 실종자 시신 4구 발견" 기사 오보 아니다"**  
 국방부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시신이 발견된 바 없다. 명백한 오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인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OBS) 뉴스를 보고 한..."



**KBS '천안함 반파지점 의혹' 오보 판명**  
 초계할 **천안함** 침몰과정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과 해양경찰청의 설명이 다르다. KBS 모노가 오보인... 밤 10시 반에 **천안함**의 함미(동강난 배 뒷부분)가 사고지점 부근에서 발견되면서 KBS의 보도가 오보로 판명됐다. MBC는...

**'천안함 실종자 시신 발견' OBS 오보 논란**

**천안함** 실종자의 시신4구가 발견됐다는 OBS(경인TV) 보도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OBS는 지난 31일 오후... 국방부와 해군2함대 측에 사실확인을 요구, '명백한 오보'라는 답을 얻었다. 협의회는 OBS에 정정보도를...



**[천안함 침몰]OBS '실종자 4명 숨진채 발견' 오보 논란**  
 발견됐다는 단독 보도가 오보 논란에 휩싸였다. 경인TV OBS는 이날 "**천안함** 실종자 46명 중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지만, 직후 국방부가 "시신은 발견된 바 없고 명백한 오보"라고 밝히며 보도된 내용에...



**[천안함 침몰]OBS '실종자 4명 숨진채 발견' 오보 논란**  
 발견됐다는 단독 보도가 오보 논란에 휩싸였다. 경인TV OBS는 이날 "**천안함** 실종자 46명 중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지만, 직후 국방부가 "시신은 발견된 바 없고 명백한 오보"라고 밝히며 보도된 내용에...



**김태영 '천안함 세 동강? 확인해 보니 오보'**  
 침몰한 지역 이외의 제3 장소에서 다른 구조물을 찾았고 부표까지 설치했다며 **천안함** '세 동강' 의혹 보도와 관련, "확인을 해 봤는데 오보"라며 "최초에 배가 보이다가 나중에 미끄러졌는데 이것을 참조하기 위해 제3의..."

이렇듯 추측성 오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지나친 속도경쟁

8)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카테고리 내 “천안함”, “오보” 키워드 검색결과 중 일부.

으로 인한 저널리즘의 기본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정부와 군 당국의 지나친 정보 통제라는 해석이 있었다. 속보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각 언론사는 자사가 취득한 유사한 내용의 파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확인되지 않고 미검증된 정보를 이리저리 짜맞추는 식의 추측성 보도를 남발하게 되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같은 국가적 대형 재난사고 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점 역시 추측성 오보 등 언론의 역기능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박동균(2009)은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추측성 오보 양산과 그에 대한 비판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홍수, 지진,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양태에 대한 분석연구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으며, 우리나라의 재난보도방식에 대한 학문적 비판과 대안이 미흡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방송의 재난보도 행태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등 재난유형<sup>9)</sup>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재난보도의 문제점으로 주로 무엇이 지적되었고, 그에 따른 제안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자연 재난 관련 선행연구

심훈(2005)은 『‘쓰나미’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이야기 구조 서사 분석』 연구

---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유형으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 둘째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방사,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인위적 재난, 셋째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재해, 그 밖에 "해외재난"이라 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에서 양국 간의 탐사 보도를 비교분석하면서, 이야기 구조와 관련해서 CBS의 '60 Minutes'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조감적 촬영과 미군 및 미 구호 요원들로만 구성된 등장인물들을 통해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미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항대립적 보도 방식을 취한 반면, MBC의 '시사매거진 2580'은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에 영향 받기보다 '기자'와 '취재원'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아래 한국 재난보도의 전형적이고 관행적인 취재 기법을 '쓰나미' 참사 현장에서도 답습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언론의 재난보도는 대체로 현장 묘사와 개인적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경향이 강하고, 후속 대책 마련보다는 책임 소재 추궁이 주를 이룬다고 밝히고 있다.

김만재(2005)는 『자연재난 보도의 특성 분석 : 태풍 루사의 사례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재난보도에서는 일기예보를 활용한 사전 정보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난 피해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의존이미지라는 재난신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경미·최낙진(2008)은 제주지역 방송사의 재난방송 보도태도를 분석한 『태풍 '나리'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에서 재난방송의 중요성과 방송사의 재난보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제주지역 방송사의 재난방송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재난에 대한 예방보도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재해방송 보도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여 피해를 키웠고, 이를 교훈삼아 '제주'라는 지리적 특성에 맞는 재난방송시스템 재구축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단순정보전달 위주의 단발성 스트레이트 기사가 소나기식으로 보도되어 잠재된 위험과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함에도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시청자로 하여금 재난상황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셋째, 환경감시기능보다는 사후의 자원동원기능에 초점을 두어 원인 및 책임규명 혹은 사후대책과 관련한 주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넷째, 재난보도에 있어 제주지역 방송사들이 차별성 없이 재난사후에 즉각적이고 의례적인 대응만 했을 뿐이며, 이는 공영방송이든 상업방송이든 같은 상황이었다고 진단하면서, 결국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난방송시스템 매뉴얼과 취재체계의 확립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 2. 인적 재난 관련 선행연구

이병중(1995)은 외국언론 시각에서 본 한국언론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보도행태를 분석하면서, 외국언론이 국내언론의 기사와 화면을 인용하면서도 붕괴 직후 사고수습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TV카메라가 들이닥쳐 혼란을 가중시켰던 점, 분초를 다투며 다급하게 이동하던 구조대원이 기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모습,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구조되어 나오는 생존자가 좀 더 많은 산소를 제공받아야 할 시점에서 생방송보도에 숨을 몰아쉬는 방송기자의 모습 등이 대다수 외국언론에게는 이상스럽게 느껴졌고, 특히 서구언론에게는 절대적으로 여겨지는 경찰통제선(police line)이 무시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이해할 수 없었으며, 또 초기상황에서 언론사 현장 임시 데스크가 사고대책본부 역할을 대행하는 점도 생소하게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탁(1995)은 우리사회에서 빈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을 보다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취재, 보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적인 재난보도 기자를 키워야 하며, 또한 언론사 스스로의 재난취재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는 등 자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최경진(2003)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에 국내언론의 재난보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무엇보다 신속성을 무기로 해야 할 방송보도의 경우 늦장 대처함으로써 방송본연의 임무에 충실치 못했으며 취재보도 중 드러난 일부 선정적 태도가 사건의 본질과악을 흐리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에서 언론이 '알권리의 충족'과 '희생자에 대한 존엄성' 사이에서 과연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욱(2003)은 재난보도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하면서,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우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안으로 첫째, 언론은 과학 보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둘째로 언론의 취재 시스템이 '위험사회'의 리스크를 관찰하고 보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야 하며, 셋째로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끝으로 새로

운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텔레비전 3사의 저녁 종합뉴스 보도를 분석한 연구(송종길, 2003)도 있다. 화재참사 보도를 ‘보도언어’와 ‘보도영상’을 분리해서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재난보도의 세 가지 문제점으로 첫째, TV 3사 모두 보도내용에 있어서 재난에 적합한 보도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사고의 초기와 수습기에 참사현황과악, 원인규명, 수습대책 등의 주제를 차별하게 다루지 못하고 선정적인 휴먼 에피소드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TV 3사 모두 기존의 과열급랭식 보도를 되풀이 했고, 특히 사고초기에 자극적·감정적 보도언어와 보도영상을 사용해 사고조사 보도, 수습대책 보도 그리고 휴먼 에피소드 보도 등을 자극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참사원인으로 지하철관계자의 과실을 부각시킴으로써 관계자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는 개인화 보도가 이루어졌다. 셋째, 불필요하게 자극적·감정적 보도언어와 영상이 사고초기와 수습기에 과다했고, 절제되지 못한 앵커와 기자의 보도언어와 선정적인 보도영상은 시청자로 하여금 왜곡된 사태과악과 정보수용을 유도했다고 요약했다. 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래 재난보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재난 발생기와 진행시기에 따라 보도내용이 달라져야 하며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구조를 가진 재난보도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 앵커와 기자는 개인의 감정을 떠난 절제된 보도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보도영상은 포토라인 등과 같은 물리적인 한계선을 정해 클로즈업 등 지나친 강조 화면을 피해야한다. 넷째, 유사한 후속재난에 대비해 책임 있는 예방보도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 체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송종길의 연구에 대해 김성재(2003)는 20세기 재난보도에 비해 21세기 재난보도의 양상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KBS와 같은 방송사는 1998년 이미 자체적으로 제정한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서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재난보도의 문제점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널리스트의 자질과 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추기도 했다.

박동균(2009)은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의 우리나라의 재난보도에 대한 연구에서 부정확한 보도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를 곤경에 빠



뜨리는 오류를 범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하며, 우리 언론에서 나타나는 재난보도가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재난에 의한 사상자가 있을 때의 뉴스가 사상자가 없을 때의 뉴스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두드러지게 묘사된다는 것. 둘째, 새로 발생한 재난은 그것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건 공중들에 의해 밝혀지건 간에 다른 것보다 더 길게, 눈에 띄게 기사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셋째, 사회의 부유층이나 권력층에 영향을 주는 재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넷째, 언론은 극적이지 않은 재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단순하지만 극적인 재난에 관심을 둔다는 점. 다섯째, 이슈보다는 사건에 대해, 장기적인 고려보다는 즉각적인 결과에 대해, 위험보다는 피해에 대해 보도를 하며 위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거의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안 역시 대부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여섯째로는 사건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적인 그룹을 포함한 개개인의 행위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한편, 사회나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적 속박에 대해서는 책임을 덜 전가시키는 책임전가의 오류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재난 전반에 대한 언론 보도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재난보도는 피해자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유언비어를 방지하여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재난보도는 방재보도와 문제해결 보도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심층취재를 위하여 재난전문기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3. 사회적 재난 관련 선행연구

김옥태, 김규찬(2010)은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의 예방위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종플루 보도에 대한 지각적 차원의 제3자 효과를 검증해보고, 신종플루 예방위생 행동을 측정하여 행위적 차원의 효과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언론 보도를 통한 신종플루의 3

자 지각은 공포와 정보습득 영역 모두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크기는 가족이나 친구보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정보습득보다는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를 통해 공포를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공포지각과 정보습득지각에 미치는 영향도 신문, TV, 인터넷과 같은 각 매체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학생들은 텔레비전을 통하여 공포를 종이신문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신종플루 예방위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인터넷뉴스 이용량과 자신이 느끼는 공포 지각, 그리고 타인들의 정보습득에 대한 지각이 개인의 예방위생 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공포와 관련한 지각적 편향은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하였다.

김재범·문성철(2010)은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행태를 ‘추정과 설의 난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사건 초기 사고 원인 보도행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상파 방송 3사는 사태 발발 2주 동안 139번의 사고 원인을 추정하는 뉴스를 내보냈다. ‘자체 결함설’, ‘북한 도발설’, ‘유실 기뢰설’, ‘원인 미상설’, ‘암초에 의한 좌초설’,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 충격설’ 등으로 대표되는 여러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하였고, 이런 원인 보도에서 나타난 특징은 3사 모두 공통적으로 일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예측 위주의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사건 초기 주로 인용된 정보원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의 전문가, 익명의 군 관계자 등이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이나 정부의 신중한 자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보를 처리하고 선택하고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사실성 등을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책무를 언론사 데스크가 갖고 있는데 이번 침몰 사건 속에서 각 언론사의 데스크 역할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사별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같은 뉴스시간에 상호 양립 불가능한 사고원인이 병렬적으로 제기된 원인은 현장 취재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와 정보에 대한 진위과약, 기사가치 판단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편집 데스크 당사자들의 역량 부족이나 인식 부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여타 언론사보다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소 언론사에 비해 그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보

도 태도는 국민 불안감 증대와 국민여론 분열을 낳았으며, 국가안보와 결부된 사태를 정치적 갈등사안으로 변모시키고 말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유세경·전지인·이석(2010)은 미국과 중국 일간지의 '천안함 침몰 사건' 뉴스 보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인민일보'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기사를 다루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국제적인 중요한 사안으로 틀짓기를 하였고, 북한을 사실상 가해자로 규정지으면서 군사적 보복을 정당화시키는 보도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비해 중국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기본적인 사실만을 보도하거나 북한의 중앙통신사측 발언만을 인용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이는 자국의 정치·외교적 이데올로기가 국제분쟁에 대한 뉴스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임양준(2010)은 『용산사태에 대한 일간신문의 뉴스보도 비교연구』에서 사회적 갈등을 국내 주요 신문의 뉴스보도가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해석,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로는 첫째로 보도프레임의 경우 화재원인을 둘러싼 철거민 유가족과 경찰집단 간의 책임공방 프레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단순보도와 진실규명 프레임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로 주요행위자로서 경찰·검찰과 한나라당이 높은 빈도수로 조사되었으며, 대조적으로 철거민 유가족과 민주당 등 야당은 대체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끝으로 신문이 행위자와 프레임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철거민유가족보다는 경찰·검찰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프레임의 특성에서도 신문보도는 대체적으로 경찰의 단순보도와 편파보도가 강조된 엘리트 중심적 보도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 약자와 정부 간의 갈등상황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보다는 국가기관이나 사회적 권력집단 측 입장을 옹호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입증한다고 결론지었다.

#### 4. 기타 재난 관련 선행연구

고승일(1995)은 재난보도 전문화 방안으로 언론사별로 특별취재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취재에 필수적인 각종 장비도 마련해 두어야 하며, 여기에다 현장 감각을 꾸준히 익힌 기자들을 투입하는 일과 사고가 일어나고 수습되는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현장 중심의 상황전달에 치우치는 사건성 보도를 지양하고 사고요인, 구조방법, 부상자나 생존자 치료 및 관리실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전문가의 조언과 과학적 정보를 통해 심도있게 보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언론사간에는 포토라인이나 폴리스라인을 지켜주는 준칙을 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운 무리한 취재나 과잉취재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자(1995) 또한 재난보도의 문제점으로 재난현장에서 기자들이 각자의 판단에 입각해서 현장취재를 하다 보니 보도의 객관성, 일관성, 정확성이 훼손되기 일쑤이고, 기자들 역시 냉정함을 유지하기보다는 흥분하기 쉽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언론기관들이 재난보도에 관한 원칙(매뉴얼)을 마련하여 기자들을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보도원칙 마련과 그 준수야말로 우리 언론의 재난보도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몫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했다.

정연구(1995)도 재난보도 준칙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는 재난보도 준칙의 목적 즉 무엇을 위해 준칙을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며, 둘째는 준칙 제정의 주체 즉 누가 준칙을 제정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고, 세 번째는 제정된 준칙의 운영 즉 어떻게 이러한 준칙이 지켜지도록 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제시했다.

유홍식(2003)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방송 저널리즘 윤리 재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지속적인 국내 언론의 문제로서 추측보도와 예측보도가 오보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지적하며 이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동종 매체 간 및 이종 매체 간 경쟁 심화는 보도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증가시키고, 또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영상의 변형과 조작이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공신력 상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성재(2003)는 10여 년 동안의 국내외 텔레비전 재난보도 사례들에서 추론될 수 있는 재난보도의 패러다임을 재난의 유형에 따라 ‘사회공동체 유지’, ‘상

업화와 극화' 그리고 '선정주의적 개인화'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재난보도의 패러다임을 고려하고 국내 텔레비전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보도 및 이라크 전쟁보도 사례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 재난보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재난구호 및 예방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둘째, 재난을 당한 사회가 일체감을 가지고 재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공동체 유지에 주력해야 하며, 셋째,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선정주의적 개인화 보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전쟁재난보도 시 과열된 취재 보도경쟁에서 비롯된 미디어의 상업화와 전쟁장면의 극화는 억제되어야 하고, 다섯째,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당사국의 미디어 보도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여섯째, 전쟁보도전문기자를 육성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특파원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곱째, 디지털 방송은 효과적인 재난경고와 구호를 위해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에게 재난을 경고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방법의 개발, 재난대책본부와 연계된 효율적인 정보제공 방법 개발, 특정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재난예보 방식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의 역할이 강조되었지만 그 동안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는 그 중요성만큼 제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왔다(한국방송개발원, 1996, pp. 36~40 재구성; 김동규, 2002 재인용). 근본적인 원인을 끈질기게 파헤치기보다는 책임자 처벌요구 보도에 중점을 두거나 냉철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보다는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치우치는 경향이 적지 않았으며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사후대책의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이성림, 1996).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재난방송에 있어서 보도는 사실성, 접근성, 흥미성과 같은 기존의 저널리즘 보도기준과는 달리 전문성, 정확성, 그리고 계몽성과 예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장원일, 2005).

이러한 이유들로 외국에서는 언론의 재난방송 보도수칙 등을 제정해놓은 경우가 있다. 먼저 일본의 공영 방송인 NHK가 마련해 놓고 있는 재난방송 보도목표

를 보면 재난사실의 정확한 보도, 불안감소 혼란방지, 피해자 뉴스욕구 충족, 구조복구 부흥기여, 방재를 위한 제언과 계몽 등으로 되어있다. 또한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가 마련해 놓은 재난방송의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고 선부른 예견을 하지 말아야 하며, 끔찍한 사건묘사나 울부짖는 장면을 금하도록 되어있다. 가이드라인 6장<사고, 재난보도> 조항에 의하면 재난보도 시 유의할 점 중 특별히 카메라 워크는 사려 깊게 하여야 하며 클로즈업 촬영은 정말 필요할 때에만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박동균, 2009; 박은희 외, 1995).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 사건·사고 및 재난 보도 행태 속에 유사한 문제점으로 예방보도의 미흡, 현장 묘사와 개인적 상황의 전달 등 선정적 태도, 여러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과 일관성이 결여된 예측 위주의 보도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재난방송시스템 매뉴얼과 취재체계를 확립하고 방송사가 객관성, 사실성 등에 대한 자체검증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학계와 언론계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재난보도 제안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 3월 26일 서해 바다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지상파방송 3사 메인뉴스의 재난보도 행태를 비교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추측성 보도의 건수와 비중을 유심히 살펴봄으로써 재난보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재난 방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1> 1990년 이후 재난 유형별 재난보도 관련 선행연구<sup>10)</sup>

재난 유형	관련 논문
자연재난	박수택(1994). 재해방송 / NHK의 지진보도와 일본의 재해방송. 신문과방송, 288호.
	심훈(2005). ‘쓰나미’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이야기 구조 서사 분석. 한국언론학보.
	김만재(2005). 자연재난 보도의 특성 분석: 태풍 루사의 사례 연구. 한국방재학회지 5.
	이경미, 최낙진(2008).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 언론정보연구, 제45권 제1호.
인위적재난	이병중(1995). 외국언론이 본 한국언론 / 삼풍 보도에서 확인된 이상한 언론. 신문과방송 제296호.
	김정탁(1995). ‘알 권리’ 보다는 ‘살 권리’가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 대한 언론의 보도. 저널리즘 비평 16.
	김원용, 황용석(1995). TV뉴스의 재난보도에 대한 서사적 접근 :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보도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여름호.
	박은희 외(1995). 삼풍 사고와 TV보도. 한국방송개발원 현안연구.
	강진숙(1996). 재난보도의 현실구성방식 연구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관한 TV뉴스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연구 5.
	송종길(2003). 대구지하철 화재관련 뉴스보도 분석. 방송문화 통권 제262호
	최경진(2003). 대구지하철 참사 보도: 보도검증. 신문과 방송 통권 제388호.
	김영옥(2003). 대구지하철 참사 보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시스템이 아닌 인재로 돌리는 것은 곤란. 신문과방송, 제388호.
	백민호(2003). 대구지하철역 화재현장 조사와 방송보도의 추이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논문집.
	이창현(2008). 집중점검 : 환경재난 보도 / 기름 유출 사고와 언론 보도 분석 / 자원봉사는 태안을 살리고 자원봉사 보도는 삼성만 살렸다. 신문과방송 제446호.
	이창현, 김성준(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언론보도 내

10) 1990년 이후 재난보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중 국내 학술지 검색사이트와 주요논문의 참고문헌을 2차 확인하여 정리한 내용을 재난유형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재난유형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내의 재난보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기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p>용분석 연구.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 심층세미나.</p> <p>이 연(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재난보도준칙.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 심층세미나</p> <p>이기동(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지역언론보도의 문제점.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 심층세미나</p> <p>박동균(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본 재난보도의 문제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5호.</p>
사회적재난	<p>박최규(2009). [저널리즘 리뷰] 전문가진단 /'신종플루' 관련 보도. 신문과방송 제462호.</p> <p>김옥태, 김규찬(2010).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의 예방위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4권 6호.</p> <p>주영기, 유명순(2010). 신문·TV 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환 및 만성질환 보도 패턴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4권 2호</p> <p>유세경, 정지인, 이석(2010). 미국과 중국 일간지의 '천안함 침몰 사건' 뉴스 보도 비교 분석. 미디어,젠더&amp;문화, 제16호</p> <p>디어드러 그리즈월드(2010). 한국 언론의 보도 : 천안함 침몰은 북 잠수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고였다. 정세와노동, 제59호</p> <p>도형래(2010). 서해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방송 3사의 보도분석. 한국방송학회 2010 봄철 정기학술대회 2010.5.</p> <p>고승우(2010). [천안함 사고와 언론] '상식과 논리' 사라진 천안함 사건 보도 정부, 수구언론의 '떠넘기기'와 '소셜쓰기'. 민족21, 2010년 6월호 (통권 제111호)</p> <p>도형래(2010). 서해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방송3사의 보도분석. 한국방송학회 2010 봄철 정기학술대회.</p> <p>김재범·문성철(2010). 천안함 사태 언론보도 진단과 개선방안 : 국가안보와 언론자유. 한국언론학회.</p> <p>유세경·정지인·이석(2010). 미국과 중국일간지의 '천안함 침몰 사건' 뉴스 보도 비교 분석. 미디어, 젠더&amp;문화.</p> <p>임양준(2010). 용산사태에 대한 일간신문의 뉴스보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4권 1호</p>
기타	<p>이창현(1995). 재난에 대한 한일 간 방송보도 비교연구. 서울: 한국방송개발원.</p> <p>조순용(1995). 미국의 재난보도 / 기자들이 경찰통제선 밖에 서있는 이유. 신문과방송, 제297호.</p> <p>고승일(1995). 재난보도 전문화 방안 / 재난보도 백서를 만들자 / 재</p>



난보도. 신문과방송, 제297호.
고재학(1995). 현장기자가 본 재난보도 / 기자잡는 악조건 사람잡는 취재경쟁. 신문과방송, 제297호.
이경자(1995). 재난보도의 문제와 과제. 신문과방송, 제297호.
박윤순(1995). 재난보도 대응체제 - YTN. 신문과방송, 제297호.
유재천(1995).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과 예방보도 / 재난보도. 신문과방송, 제297호.
정연구(1995). 재난보도 준칙 마련의 필요성 / KBS를 상시 방재기관으로. 신문과방송, 제297호.
정익재, 정창무(1996). 재난의 유형과 재난관리. 한국행정정보, 제30권 제1호.
정연구(1999).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 준칙과 보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프레스센터.
이재진(2000). 매체비평- 신문 / 신문의 위기보도와 감성적 피로. 신문과방송 제360호.
김동규(2001). 한국 언론의 위기보도, 그 실상과 과제. 한국방송학회, 위험보도와 재난보도에 대한 성찰 2001.11.
김동규(2002). 한국 언론의 위기보도, 그 실상과 과제 - 재난, 전쟁, 테러 및 갈등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
정유철(2003) 일본 언론의 재난보도형태, 한국언론재단 제7기 단기연수 보고서.
김성재(2003).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재난보도 방향.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56호 2003.7.
김승일(2003). 현장포커스 / 일본 방재시스템과 언론의 재해보도 연수기. 신문과방송, 제394호.
이상기(2007). 미디어 포럼 / 우리나라 재해예방 보도의 현주소 : 재해·재난시 정보는 생명, 예방·대피에 주력해야. 신문과방송, 제441호.
이연(2008). 저널리즘 리뷰 / 재난보도 이렇게 하자_선진화된 매뉴얼 시급. 신문과방송 제453호.
이연(2009). 재난과 재난방송시스템에 관한 연구, 방송공학회지, 제14권 제4호.
최성중(2009). 재난경보방송 소개, 방송공학회지, 제14권 제4호.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부나 군 당국의 대언론 정보 통제는 여타 사건보다 그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 그로 인해 언론사들로 하여금 사고현황과악, 사고원인, 수습대책 등의 주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원인을 제공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적 대형 사건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천안함 침몰 사건의 경우, 발생 초기부터 지상과 방송의 보도행태는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와 오보를 생산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상과 방송 3사 메인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된 뉴스 보도 기사를 문장 단위로 내용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의 하위 유목은 보도 성격, 보도의 사실 확인 여부, 보도의 취재원 인용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이들 분석 결과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방송 3사 메인뉴스의 보도문장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 연구문제 2>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방송 3사의 메인뉴스 보도문장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였는가?

연구문제 2-1> 보도문장은 그 내용에 있어서 취재원(출처)과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가?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 대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상파 3사 KBS-1TV, MBC-TV, SBS-TV 등 3개 채널의 저녁 메인뉴스인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 SBS 8 뉴스로 정하였고, 조사기간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2010. 3. 27(토)부터 합동조사단의 사건관련 최종 발표가 있었던 2010. 5. 25(화)까지 60일 간으로 정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었던 2010. 3. 27(토)~2010. 5. 25(화)까지 60일 간 지상파 방송 3사 메인뉴스에서 방송된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모든 뉴스 기사를 수집하여 보도의 내용을 10개의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분석단위를 기사 전체로 하였을 경우 하나의 기사에 여러 가지 내용이 혼합될 수 있어 해당 유목 판단에 연구자의 주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입될 수 있고, 기사의 세부내용(특히, 문장에 포함된 방송사의 주관적 평가 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분석단위는 문장 단위로 하였다. 기사의 내용에 따라 10개 유목으로 분류된 문장들은 다시 사실의 확인·미확인 여부, 취재원의 유·무 여부로 분류하였다.

기사수집 및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각 방송사별로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하여 많이 다루어진 내용,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보도, 취재원 유·무 여부, 확인되지 않은 인용원의 발언 등을 해당문장의 예시 및 횟수를 들어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방송사별로 분석대상이 되는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보도 중에서 전체 보도 대비 특정 유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치를 표기했다. 다만 본 연구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심히 적다고 판단되는 기사에 대하여는 임의삭제 처리하였고, 비슷한 내용의 기사라도 기사 별로 문장 수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데이터 코딩 시 코더 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 기간 내 첫 주의 지상파 방송 3사 메인뉴스를 대상으로 코딩 방법에 대한 보조연구원 교육 및 실습이 실시되었고, 보조연구원에 의해 1차 코딩되어 취합된 데이터 자료는 연구자에 의해 2차적으로 확인·수정 절차를 거쳐 완성하였다.

### (1) 보도문장의 내용에 따른 분류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 코딩 및 분석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먼저 보도 성격에 따른 분류 시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보도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의 방송 뉴스프로그램 분석 시 주로 활용되었던 유목인 사건 행위, 사건 묘사, 책임 문제, 차후 대책, 원인 규명을 일부 활용하고 본 연구가 보도기사 단위가 아닌 보도문장을 분석 단위로 삼고 있어 유목을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 방송사 의견, 정계 동향, 사후 영향, 실종자·유가족 동향, 기타 유목 등을 추가하여 총 10개의 유목으로 구성하였다.

#### 가. 사건 행위

사건 행위 유목에는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했습니다.”, “‘천안함’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사고 발생 세 시간만에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와 같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행위 사실 그 자체를 서술한 문장, 사건을 재구성한 문장<sup>11)</sup>, 구조자의 병원 이송상황, 유가족의 집단행동, 실종자의 생사확인 등과 관련된 문장이 포함되었다.

#### 나. 사건 묘사

사건 묘사 유목에는 “화면 오른쪽 함수 부분은 옆으로 90도 가까이 기울 상태

11) 추측성 재구성 및 군 발표를 토대로 한 재구성 포함하며, 이 때 추측성 재구성 문장은 사실이 미확인된 것으로 처리함

로 바다 위에 떠 있고, 함미 부분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와 같은 뉴스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장면(실제 장면)을 말로 묘사한 문장, 현장스케치(눈에 보이는 행동 및 장면의 단순 묘사) 및 분위기를 묘사한 문장 등이 포함되었다.

#### 다. 방송사 의견

방송사 의견 유목에는 “결국 9시 반 이전에 사고가 일어났고 이를 촬영한 화면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조심스런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와 같은 방송사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문장, 방송사의 특정 의도가 내포된 캐치프레이즈가 포함된 문장이 포함되었다.

#### 라. 원인 규명

원인 규명 유목에는 “민군 합동조사단도 인양된 함미를 감식한 결과, 함체 밑으로부터의 외부폭발로 결론지었습니다.”와 같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문장,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과정과 관련된 문장이 포함되었다. 이 때 보도문장 중 북한 관련 기사의 경우, 북한의 어뢰에 관한 기사는 원인에 대한 추측으로 판단하여 원인 규명에 포함하였다.

#### 마. 책임 문제

책임 문제 유목에는 “군의 보고체계와 함께 실종 장병 대부분이 있었던 함미의 위치를 찾는 데만 이틀 넘게 걸렸던 해군의 수색 구조 작전의 문제점 등이 감사 대상입니다.”와 같은 천안함 침몰 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된 문장이 포함되었다.

#### 바. 정계 동향

정계 동향 유목에는 “여야 3당 대표들은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와 같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정계동향,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해외 동향 및 북한 동향, 그리고 정치인들의 책임공방 및 유가족 면담 등과 관련된 문장 등이 포함되었다.

## 사. 차후 대책

차후 대책 유목에는 “희생자 전원에게 1계급 추서와 함께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와 같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의 대응책, 인양일정, 수색계획 등과 관련된 문장이 포함되었다.

## 아. 사후 영향

사후 영향 유목에는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북핵 6자회담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와 같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한 국내외 사회·경제적 영향 등과 관련된 문장이 포함되었다.

## 자. 실종자·유가족 동향

실종자·유가족 동향 유목 내에는 “오늘 오후엔 구조작업 중에 숨진 고 한주호 준위 가족도 유가족들을 찾아 슬픔을 나눴습니다.”와 같은 실종자·유가족과 관련한 개인적 사연들을 집중 취재한 기사 문장이 포함되었다.

## 차. 기타

기타 유목에는 “인터넷에는 누리꾼들이 직접 쓰고 만든 추모 시와 동영상도 올라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와 같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직접 관련성은 적으나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쓰인 기사 중 위 유목에 해당되지 않는 문장이 포함되었다.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국민 및 네티즌의 여론은 기타에 포함시켰으며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성이 심히 적다고 판단되는 기사 및

문장은 삭제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보도문장의 사실 확인 여부에 따른 분류

다음으로 보도 기사의 사실 확인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는 보도 기사의 내용 성격에 따라 각 유목별로 나눈 문장에 대해 <사실 확인·사실 미확인>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사실이라 함은 국방부 및 정부의 공식적 발표를 제1기준으로 하였다. 추측성 발언들은 사실 미확인으로 처리하였다. 방송사에서 직접 취재할 수 없었던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인용원의 말만을 토대로 직접 본 듯이 재구성하여 설명하는 기사들은 사실 미확인으로 처리하였고 그 외 방송사가 취재원들로부터 직접 취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이후 처리과정(병원이송, 인양일정, 수색과정 등)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으로 처리하였다.

## (3) 보도문장의 취재원 인용 여부에 따른 분류

마지막으로 보도 기사의 인용여부에 따라 각 유목별로 나눈 문장에 대해 <취재원 있음·취재원 없음>으로 분류하였는데 취재원의 발언을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경우(“...”로 인용한 경우)와 간접 인용한 경우(傳言의 경우) 모두 취재원 있음으로 처리하였다. 취재원이 불특정 다수일 경우, 취재원은 있으나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특정한 전문가를 취재원으로 했을 경우에도, 전문가의 발언 자체가 추측에 근거했을 경우에는, 취재원은 있으나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 (4) 기간별 추이

이상의 분류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 보도 문장들을 분류한 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 분석기간을 1차 시기 ~ 5차 시기로 나누어 기사문장 수량의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기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차 시기 : 2010. 03. 27 ~ 2010. 04. 14 (사건발생~함미 인양 전까지)
- 2차 시기 : 2010. 04. 15 ~ 2010. 04. 25 (함미 인양~함수 인양까지)
- 3차 시기 : 2010. 04. 26 ~ 2010. 05. 07 (전군 지휘관 회의 등)
- 4차 시기 : 2010 .05. 08 ~ 2010. 05. 19 (합동조사단 조사활동 등)
- 5차 시기 : 2010. 05. 20 ~ 2010. 05. 25 (합동조사단 공식발표 이후)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의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관련해서는 <가. 분류>의 해설 보도 중 의혹성 추측보도 대상을 살펴 ‘추측보도’의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이 때 국방부 등 정부 공식발표와의 차이점, 취재원(출처)·근거의 명확성, 사실의 입증 부재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 보도 기사 문장들이 우리나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내 재해·재난보도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했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지상과 방송 3사의 메인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해당 기사 문장의 유목을 분류하고 기사 문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지상과 방송 3사 보도 경향을 살피고자 했다. 보도 성격에 따른 분류 결과,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에서 ‘사건 행위’, ‘사건 묘사’ 등의 비율은 감소추세로 나타난 반면, ‘원인 규명’, ‘책임 문제’, ‘정계 동향’, ‘차후 대책’, ‘사후 영향’ 등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및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하여 보도의 사실 확인 여부에 따른 분류 결과, 5차에 걸친 분석기간 동안 지상과 방송 3사 모두 전반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의 분석을 취재원이 드러난 경우에 한해 재분류한 결과, 취재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비율은 방송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취재원의 발언에 있어 사실적 정보를 가장 많이 포함한 방송사는 KBS-1TV인 반면, 취재원의 발언에 추측성이 가장 많이 포함된 방송사는 MBC-TV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5차에 걸친 기간별 추이로 살펴본 결과,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이 시작된 4차 시기와 천안함 침몰 원인 정부 공식 발표가 있었던 5차 시기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천안함 침몰 당시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보도되다가 공식적으로 원인조사를 하고 결과 발표가 이뤄지면서 점차 사실이 확인된 보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취재원을 통한 취재의 경우에도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모두 정확한 사실인양 오인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추측보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대형 사건·사고 보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표 2> 유목별 보도문장 현황

	KBS-1TV	MBC-TV	SBS-TV	통합
1. 사건 행위	2,307(32.4)	<b>1,795(35.7)</b>	1,058(21.8)	5,161(30.4)
2. 사건묘사	338(4.7)	362(7.2)	<b>396(8.2)</b>	1,096(6.4)
3. 방송사 의견	122(1.7)	128(2.5)	<b>354(7.3)</b>	604(3.6)
4. 원인 규명	1,106(15.5)	<b>930(18.5)</b>	632(13.0)	2,668(15.7)
5. 책임 문제	189(2.7)	<b>170(3.4)</b>	160(3.3)	519(3.1)
6. 정계 동향	834(11.7)	679(13.5)	<b>804(16.6)</b>	2,317(13.6)
7. 차후 대책	<b>898(12.6)</b>	327(6.5)	465(9.6)	1,690(9.9)
8. 사후 영향	134(1.9)	154(3.1)	<b>292(6.0)</b>	580(3.4)
9. 실종자/유가족 동향	367(5.2)	292(5.8)	<b>426(8.8)</b>	1,085(6.4)
10. 기타	<b>826(11.6)</b>	183(3.6)	267(5.5)	1,276(7.5)
계	7,121(100)	5,020(100)	4,854(100)	16,995(100)

### 1. 기술(記述) 통계

분석결과, 지상파 방송 3사 메인뉴스를 통틀어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보도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건과 관련한 사실적 행위 자체, 경위 등을 서술한 사건 행위(5,160건, 30.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다뤄진 내용은 원인 규명(2,668건, 15.7%), 정계 동향(2,317건, 13.6%) 관련 보도 순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유목은 각 방송사 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지상파 방송 3사 모두에서 많이 다루어진 상위부류로 나타났다. 단 KBS-1TV의 경우 차후 대책 관련 기사문장이 정계동향 관련 기사문장보다 많았다.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총보도량<sup>12)</sup>은 KBS-1TV(7,121건), MBC-TV(5,020건),

12) 각 방송사별 총보도량은 리포터가 취재한 보도기사 등을 포함한 뉴스 꼭지의 총 건수가 아닌, 보도기사 내에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 분석유목으로 분류한 문장의 총 수를 나타낸 것임.

SBS-TV(4,8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사의 건수가 아닌 해당 기사의 문장을 측정하는 것이나, 전체 보도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각 방송사별·유목별 통계량 특징을 살펴보면, KBS-1TV의 경우 전체 보도량에 대비하여 침몰 사건 관련 배경지식이나 국민여론 등이 포함되는 기타 항목(826건, 11.6%)의 기사문장이 타사에 비하여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차후 대책(898건, 12.6%) 항목 기사문장도 타사에 비해 1.5~2배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MBC-TV의 경우 사건 행위(1,795건, 35.7%), 원인 규명(930건, 18.5%), 책임 문제(170건, 3.4%) 항목 기사문장이 타사에 비하여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SBS-TV의 경우 사건 묘사(396건, 8.2%), 방송사 의견(354건, 7.3%), 정계 동향(804건, 16.6%), 사후 영향(292건, 6.0%), 실종자·유가족 동향(426건, 8.8%) 유목에서 타사에 비하여 그 비중이 높았다.

각 방송사별·유목별 특이점을 살펴보면, KBS-1TV의 경우 사건 묘사 (4.7%) 항목의 기사문장 비중이 타사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반면, 차후 대책(12.6%) 항목은 MBC(6.5%)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1TV의 경우 기타(11.6%) 항목의 비중이 타사의 2~3배로,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주변 지식들이 타사에 비해 더 많이 다루어졌다. SBS-TV의 경우 방송사 의견(7.3%) 기사문장 비중이 지상파3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영향(6.0%) 항목은 타사의 2~3배, 실종자·유가족 동향(8.8%) 항목은 1.5~2배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졌음을 확인했다.

## 2. 유목별 세부 설명

### 1) 사건 행위

사건 행위 유목은 사실 그 자체를 서술한 문장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문장이 포함된다. 이 때 추측성 재구성 및 군 발표를 토대로 한 재구성 문장을 포함하였으며, 추측성 재구성 문장은 사실 미확인 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분석 기간에 따른 사건 행위 유목 내 기사 문장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 1차시기(3사 통합, 3,632건)에 그 수가 가장 많았으며 4차시기에 그 수가 가장 적었다(3사 통합, 36건). 5차에 걸친 분석기간 동안, 방송사별로 사건행위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를 비교한 결과, KBS-1TV(2,306건)에서 해당 유목 내 기사 문장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MBC-TV(1,795건), SBS-TV(1,058건) 순으로 기사 문장 수의 총합이 높았다.

#### (1) 방송사별 사건 행위 문장 예시

##### <KBS-1TV>

-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했습니다.
- 전체 승조원 백네 명 가운데 무려 마흔여섯 명이 실종됐습니다.
- 해난구조대원들은 승조원 식당에서 서대호 하사 등 4명을 한꺼번에 찾아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1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 한편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6명의 가족들은 화장 절차를 맨 마지막 막으로 미룬 채, 내일 함수 내부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 <MBC-TV>

- 경비정 9척과 300여 명이 사고해역 반경 6km 부근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구조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 침몰 49시간만인 어젯밤 10시 반쯤 실종자 대부분이 갇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함 함미가 발견됐습니다.
- 천안함 생존자 57명이 오늘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 천안함 내부의 침몰 직전 영상이 담긴 CCTV 화면이 오늘 유족들에게 공개됐습니다.
- 한편, 천안함 희생 장병 46명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20일, 모두 '전사자'로 공식 인정됐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 <SBS-TV>

- 어젯밤 9시반 쯤 백령도 남서쪽 1.8km 지점을 통과하던 천안함의 선체 뒷 쪽에서 갑자기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 어제(25일) 평택항으로 옮겨진 천안함 함수 부분에서는 오늘 내부 잔여물과

무기 제거작업이 진행됐습니다.

→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 장병은 원사 이창기, 상사 최한권, 중사 박경수, 하사 박보람, 장진선, 박성균, 일병 강태민, 이병 정태준, 이렇게 8명입니다.

→ 군 당국은 천안함에서 떨어져 나간 가스터빈을 해저에서 인양해 화약 성분 검출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1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천안함 안팎에서 화약 성분 RDX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행위 유목 내 포함된 문장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했습니다.”, 또는 “천안함이 폭발한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270여 미터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와 같은 천안함 침몰 사건 그 자체를 서술한 문장 유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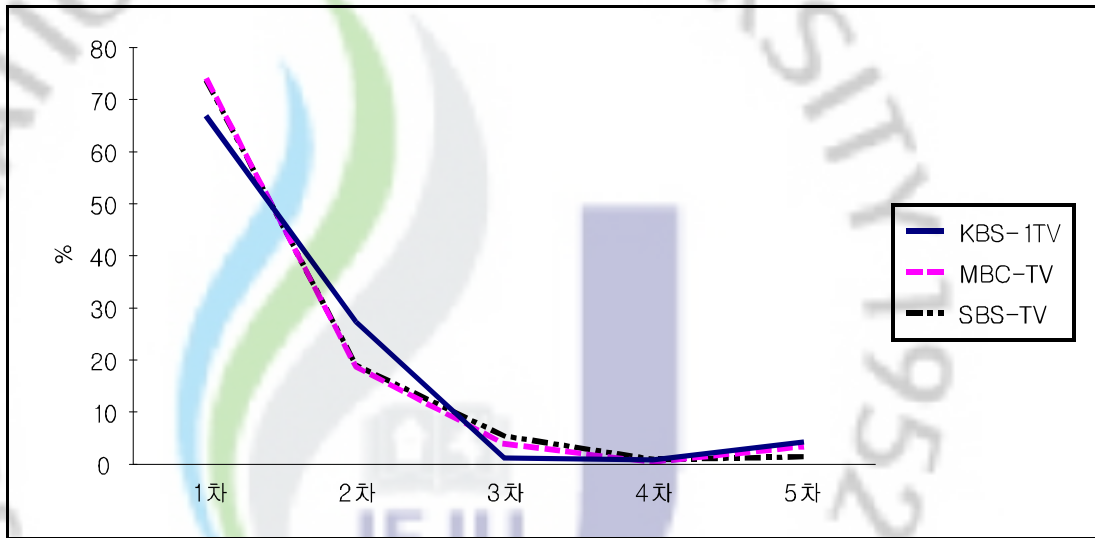
“침몰 49시간만인 어젯밤 10시 반쯤 실종자 대부분이 간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함 함미가 발견됐습니다.”, “천안함이 두 동강난 채 침몰한 지 오늘(15일)로 20일째, 실종자 대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온 함미가 마침내 인양됐습니다.” 등의 예시 문장의 경우 천안함 침몰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서술과 함께 사건에 대한 재구성 및 추정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분석·처리했다.

<표 3> 사건 행위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사건 행위	1,533(66.5)	1,324(73.7)	775(73.3)	3,632(70.4)
2차. 사건 행위	629(27.3)	334(18.7)	202(19.0)	1,165(22.6)
3차. 사건 행위	27(1.2)	70(3.9)	57(5.4)	154(3.0)
4차. 사건 행위	20(0.8)	7(0.4)	9(0.9)	36(0.7)
5차. 사건 행위	97(4.2)	60(3.3)	15(1.4)	172(3.3)
계	2,306	1,795	1,058	5,159(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사건 행위 유목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2> 사건 행위 기간별 추이



사건 행위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를 방송사별로 5차에 걸친 분석시기에 따라 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3개 방송사 모두에서 분석 1차 시기에서 5차 시기로 오면서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KBS-1TV와 MBC-TV의 경우 분석 4차 시기에 비해 5차 시기에서 보다 높은 해당 유목 내 문장 수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3개 방송사 모두 분석 2차 시기에서 3차 시기로 오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사실 그 자체를 서술한 문장이나 침몰사건을 재구성한 문장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후 구조자의 병원 이송상황, 유가족의 집단행동, 실종자의 생사확인 등과 관련된 문장 역시 사건 발생 시일이 경과할수록 줄어들었다.

각 시기별로 전체 유목 내에서 해당 유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1차 시기부터 5차 시기까지 비교한 결과 KBS-1TV에서는 1차시기(66.5%)를 시작으로 2차시기(27.3%), 3차시기(1.2%), 4차 시기(0.8%)까지 10개의 하부 유목 중에서 차지하는 문장 수의 비율이 줄어들다가 5차 시기(4.2%)에서는 그 비중이 증가했다.

MBC-TV에서도 역시 KBS-1TV와 같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1차 시기(73.7%)를 시작으로 2차 시기(18.7%), 3차 시기(3.9%), 4차 시기(0.4%)까지 10개의 하부 유목 중에서 차지하는 문장 수의 비율이 줄어들다가 5차 시기(3.3%)에서는 그 비중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SBS-TV에서도 역시 1차 시기(73.3%)를 시작으로 2차 시기(19.0%), 3차 시기(5.4%), 4차 시기(0.9%)까지 10개의 하부 유목 중에서 차지하는 문장 수의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5차 시기(1.4%)에서는 사건행위 내 포함되는 문장의 비중이 소폭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 2) 사건 묘사

사건 묘사 유목은 뉴스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장면(실제 장면)을 말로 묘사한 기사문장, 현장스케치(눈에 보이는 행동 및 장면의 단순 묘사) 및 분위기 묘사 등의 기사문장이 포함된다.

분석결과, 2차 시기에서는 천안함 인양과 함께 천안함의 모습을 묘사하는 문장들이 주로 많았다. 3차 시기에서는 천안함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분위기와 국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는 모습 등이 주로 묘사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천안함 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천안함의 외항을 묘사 및 분석하는 내용들이 보도되었다.

분석 기간에 따른 사건 묘사 유목 내 기사 문장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 1차 시기(3사 통합, 745건)에 가장 그 수가 많았으며, 4차 시기에 그 수가 가장 적었다(3사 통합, 2건). 전체 보도 대비 비중은 SBS-TV(396건, 8.2%)가 가장 높았으며, KBS-1TV(338건, 4.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방송사별 사건 묘사 문장 예시

#### <KBS-1TV>

- 바닥을 해면으로 향하고 거꾸로 놓여 있습니다.
- 갑판에서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어른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만한 복도가 나옵니다.
- 중간에 있는 돛 레이더가 바닷물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 오늘 인양된 천안함의 함미는 사선으로 거칠게 찢어져 있어 사고 당시 강한 충격이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위 육교를 건너던 행인들은 걸음을 멈추고 유족들이 탄 버스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MBC-TV>

- 섬에서 서남쪽 1.8km 떨어진 지점에 검은 물체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 화면 오른쪽 함수 부분은 옆으로 90도 가까이 기울 상태로 바다 위에 떠 있고, 함미 부분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 절단면을 감싼 그물이 찢겨져 나갈 듯 쇠조각이 위협적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 현화와 분향이 시작되자 유족들은 차마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보낼 수 없어 유골함에 입을 맞추고, 영정 사진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 충격을 직접 받은 함미의 좌현도 배 바닥에서 1.4m 가량 밀려 올라갔고 단 면은 충격을 받은 듯 구겨져 있습니다.

<SBS-TV>

- 해군 2함대 소속 천2백 톤급 초계함 천안함이 배 끝부분만 남긴 채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 대형 크레인의 굉음과 함께 함미 갑판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내부를 가득 채웠던 물들이 폭포수처럼 빠져 나옵니다.
- 40mm 부포의 포신 앞부분은 덮개가 씌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물망으로 가리긴 했지만 울퉁불퉁 찢기고 흰 절단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 특히, 함체의 좌현 쪽보다는 우현쪽이 훨씬 더 많이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 습니다.

사건 묘사 유목 문장의 경우, 현장스케치나 사물묘사, 분위기 묘사의 문장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주민들의 호느낌 속에 국화꽃 송이들이 바다에 던져졌고, 백 사장에 술을 뿌리며 넋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등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의 모습이나 국민들의 추모분위기를 묘사한 문장과, “그물망으로 가리긴 했지만 울퉁불퉁 찢기고 흰 절단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등 인양된 함수 및 함미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들이 주를 이루었다. 사건 묘사 유목의 경우 각 방송사별 두드러진 특성 등은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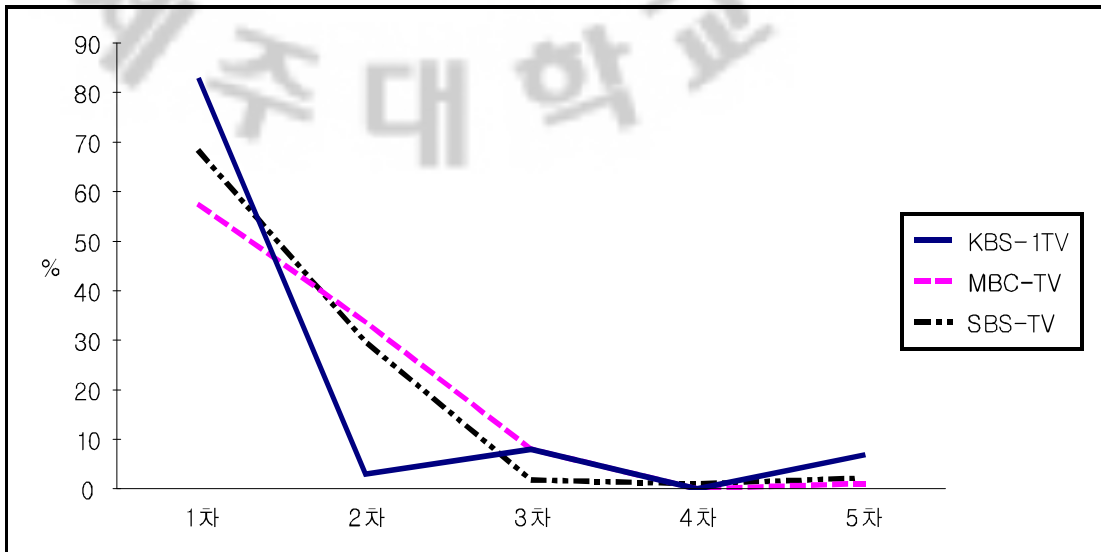


<표 4> 사건 묘사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사건 묘사	279(82.5)	207(57.2)	259(68.0)	745(68.0)
2차. 사건 묘사	10(3.0)	122(33.7)	113(29.7)	245(22.3)
3차. 사건 묘사	26(7.7)	29(8.0)	7(1.8)	62(5.7)
4차. 사건 묘사	0(0)	0(0)	2(1.0)	2(0.2)
5차. 사건 묘사	23(6.8)	4(1.1)	15(2.2)	42(3.8)
계	338	362	396	1,096(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사건 묘사 유목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3> 사건 묘사 기간별 추이



사건 묘사 유목의 경우, 3사 모두 1차 시기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가 4차 시기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KBS-1TV의 경우 2차 시기에 급감하다 3차 시기에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이 시기에 진행된 희생자 영결식 추모 분위기를 묘사하는 문장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KBS-1TV와 MBC-TV의 4차시기 분석결과는 천안함 침몰 사건 자체에 대한 사건 묘사에 해당되는 문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유목 내 문장 건수가 0건으로 코딩되었다.

### 3) 방송사 의견

방송사 의견 유목 내에는 방송사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문장이나 방송사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캐치프레이즈가 포함된 문장, 그리고 사건에 대한 방송사의 해석 등이 포함되었다.

방송사 의견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는 5차에 걸친 분석 기간 중 분석 1차 시기(3사 통합, 307건)에 가장 많았으며, 분석 4차 시기(3사 통합, 37건)에 가장 적었다.

5차에 걸친 분석기간 동안, 방송사별로 방송사 의견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를 비교한 결과, SBS-TV(354건)에서 해당 유목 내 기사 문장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MBC-TV(128건), KBS-1TV(122건) 순으로 기사 문장 수의 총합이 높았다.

#### (1) 방송사별 방송사 의견 문장 예시

##### <KBS-1TV>

- 침몰 사고 1시간 후 속초함이 레이더에 비행물체가 나타나 경고 사격을 가했다는 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떼였다는 함참의 발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특히, 온 국민이 지켜보는 영결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실천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국 지도부가 그만큼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무겁게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천안함 조사결과는 결국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북한군에게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 북한이 잠수함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대비 못한 정보.작전 담당자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TV>

- 사고 당시 천안함 주변에 있던 속초함이 함포사격을 한 대상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해경 보고가 맞다면, 9시15분에 문제가 생긴 천안함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했는지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그래서 책자에 나오는 폭약과 천안함 선체에서 발견된 고성능 폭약과의 비교가 없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 군이 몇 주 전 연어급 잠수정이 훈련하는 모습을 포착하고도, 침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정부의 이례적인 대북 조치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으며 당분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SBS-TV>

- 그리고 사고 사흘째인 오늘, 선체의 함수와 함미 부분이 7.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국방부는 애매하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 시간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군 작전 시계와 개인의 시계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이 답변은 우리 군의 시간에 대한 현 주소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 북한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입니다.
- 과학적인 조사를 강조한 중국의 속내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태도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인데 북한의 이번 침범이 과거 많은 경우처럼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여러가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침몰 사고 1시간 후 속초함이 레이더에 비행물체가 나타나 경고 사격을 가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떼였다는 함참의 발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군 당국의 혼선으로 수십 분씩 당겨졌다 미뤄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등 천안함 침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관한 지적과 비판 등이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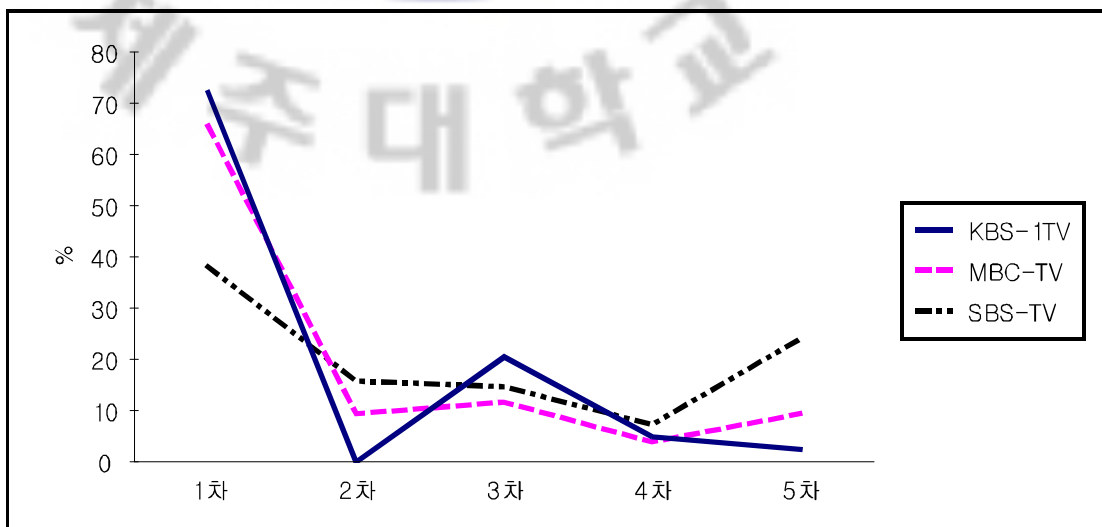
“오는 24일 인양될 예정인 함수 부분에 실종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존 장병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침몰 당시 승조원 배치로 볼 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와 같은 문장이나 “폭발 충격이 천안함 좌현 아랫쪽의 가스 터빈실을 시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선체를 관통하면서 우현 윗쪽으로 전달됐다는 추정입니다.” 등의 문장은 방송사 측의 사건에 대한 추정 의견이 포함되었다.

<표 5> 방송사 의견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방송사 의견	88(72.1)	84(65.6)	135(38.1)	307(50.8)
2차. 방송사 의견	0(0)	12(9.4)	56(15.8)	68(11.3)
3차. 방송사 의견	25(20.5)	15(11.7)	52(14.7)	92((15.2)
4차. 방송사 의견	6(4.9)	5(3.9)	26(7.3)	37(6.1)
5차. 방송사 의견	3(2.5)	12(9.4)	85(24.0)	100(16.6)
계	122	128	354	604(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방송사 의견 유목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4> 방송사 의견 기간별 추이



해당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를 방송사별로 5차에 걸친 분석시기에 따라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분석 2차 시기까지는 3개 방송사 모두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징적인 것은 분석 4차 시기 이후 5차 시기로 오면서 MBC-TV와 SBS-TV에서는 방송사 의견 내 기사 문장 수가 증가하였으나 KBS-1TV의 경우 문장 수가 감소했다. 각 시기별로 전체 유목 내에서 해당 유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1차 시기

부터 5차 시기까지 비교한 결과 3개 방송사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KBS-1TV에서는 1차 시기(72.1%) 이후 2차 시기(0%)에서 그 비중이 줄었다가 3차 시기(20.5%)에서 비중이 증가한 이후, 4차 시기(4.9%)와 5차 시기(2.5%)에서 계속해서 그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MBC-TV에서는 4차 시기까지는 KBS-1TV와 유사한 양상의 전체 유목 중 해당 유목 내 기사 문장 비중을 보였으나 5차 시기(9.4%)에서는 그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SBS-TV에서는 앞선 두 방송사와는 달리 4차 시기(7.3%)까지 전체 10개의 하부 유목 중에서 차지하는 문장 수의 비율이 꾸준히 그 비중이 감소하다가 이후 5차 시기(24.0%)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4) 원인 규명

원인 규명 유목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문장 및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과정과 관련한 기사문장이 포함된다. 침몰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추측하는 보도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처리하였고 그 외 원인 조사 과정에 관한 사실을 보도한 경우 사실이 확인된 보도로 처리하였다.

1차~4차 시기까지의 원인 규명 유목의 경우, 아직 천안함 침몰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거나 검토하는 내용이 주로 보도됨. 그 외에는 원인 조사 과정 및 정계의 원인 규명 촉구 등의 내용이 있었다. 2차~3차 시기에서는 함수인양과 파편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원인 규명 관련 기사들이 보도되었으며 군,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원인에 관한 추측들을 주로 보도한 것으로 확인했다.

분석 기간에 따른 원인 규명 유목 내 기사 문장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 1차 시기(3사 통합, 1,588건)에 가장 그 수가 많았으며 4차 시기에 그 수가 가장 적었다(3사 통합, 144건).

전체 보도 대비 비중은 KBS-1TV가 15.5%(1,106건), SBS-TV가 13.0%(632건)인 데에 비해 MBC-TV가 18.5%(930건)로 가장 높았다.

(1) 방송사별 원인 규명 문장 예시

<KBS-1TV>

- 사고지점 근처에 해도에도 나오지 않는 수중 암초가 있는 것으로 KBS-1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왼쪽에서 들어온 충격에 침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합동조사단은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간 백미터의 백색섬광 기둥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당시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튄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군 전문가들은 제조 과정에서 부품 식별을 위해 써 놓은 것이고 북한 무기에서 발견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합니다.
- 조사단은 이 어뢰가 천안함 왼쪽 아래에서 터지면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TV>

- 배가 좌초했거나 선내에 있던 포탄의 폭발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입니다.
- 바닥에 묻혀있던 기뢰가 천안함이 이동할 때 떠올라 폭발하면서, 천안함이 폭발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의 선체 등에서 찾아낸 화약성분이 어뢰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 결론적으로 천안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잠수정이 공해를 통해 침투한 뒤, 천안함에 근접해 어뢰를 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SBS-TV>

-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적재된 포탄이 폭발했을 가능성.
- 1천 2백 톤급 초계함을 단방에 두 동강낸 폭발력만 놓고 보면 어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어뢰 공격 중에서도 수중폭발, 이른바 버블제트 충격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이 침투해 천안함을 근접 공격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합동조사단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상어급 잠수함이 백령도 남방에서 북서진하던 천안함의 왼쪽 전방까지 근접해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인 규명 유목 내에서는, “암초 같은 외부 물체 때문이라면 함체 외벽이 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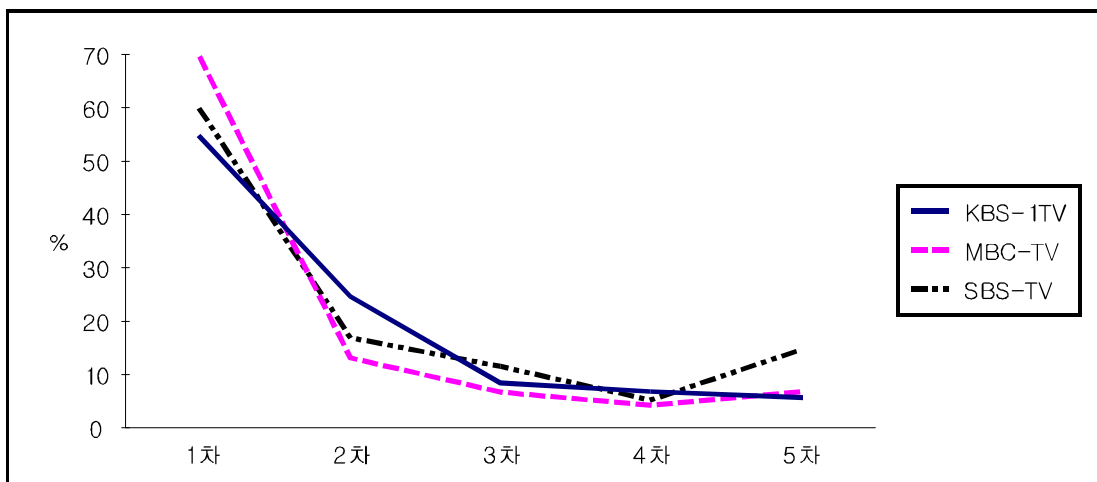
게 굵히거나 찢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와 같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하여 방송사 자체적으로 원인을 추측하는 문장, “이는 전형적인 버블제트에 의한 파괴형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와 같이 특정 또는 불특정의 취재원의 의견을 근거로 원인을 추측하는 문장, “이에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도 북한의 어뢰 공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와 같이 원인에 대한 군·정부의 입장을 보도하는 문장,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이 침투해 천안함을 근접 공격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와 같이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문장 등이 포함되었다.

<표 6> 원인 규명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원인 규명	603(54.5)	644(69.2)	341(59.5)	1588(59.5)
2차. 원인 규명	272(24.6)	122(13.1)	97(16.9)	491(18.4)
3차. 원인 규명	93(8.4)	62(6.7)	66(11.5)	221(8.3)
4차. 원인 규명	75(6.8)	39(4.2)	30(5.2)	144(5.4)
5차. 원인 규명	63(5.7)	63(6.8)	98(14.6)	224(8.4)
계	1,106	930	632	2,668(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원인 규명 유목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5> 원인 규명 기간별 추이



원인 규명 유목의 경우 3사 모두 천안함 침몰 직후인 1차 시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후 MBC-TV와 SBS-TV는 천안함 함미·함수 인양시기인 2차 시기에서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KBS-1TV는 희생자 영결식이 있던 3차 시기까지 완곡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이 시작된 4차 시기와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던 5차 시기부터는 3사 모두 전체 보도 대비 10% 이하의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 5) 책임 문제

천안함 침몰 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책임 문제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는 5차에 걸친 분석 기간 중 분석 1차 시기(3사 통합, 314건)에 가장 많았으며 분석 4차 시기(3사 통합, 9건)에서 가장 적었다.

5차에 걸친 분석기간 동안, 방송사별로 책임 문제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여타 유목에 비해 방송사 간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장 수의 총합에서는 KBS-1TV(189건)에서 해당 유목 내 기사 문장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MBC-TV(170건), SBS-TV(160건) 순으로 기사 문장 수의 총합이 높았다.

### (1) 방송사별 책임 문제 문장 예시

#### <KBS-1TV>

- 오늘 회의에서 의원들은 초기 대응과 원인 규명의 미흡한 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 침몰 이틀째, 해군 해난 구조대원들이 사고 12시간 만에 투입됐지만 침몰한 배 뒷부분, 함미의 위치가 파악이 안 돼 허둥졌습니다.
- 문책 인사 등 군 기강 잡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군은 내부적으로 전비태세 검열을 벌이고 있고, 감사원도 곧 직무감찰에 들어갑니다.



→ 이 때문에 군당국은 군 수뇌부의 책임 표명과는 별개로 문책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TV>

→ 우리 군은 가라앉은 함미의 위치를 알고도 정작 이틀 동안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그렇지만, 함대사령부가 파악한 사실을 함장이 모른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 특히 이번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만큼 감사원은 군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엄정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 당시 우리 군은 북한 잠수정이 서해에서 수중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북 잠수정 한 척에 우리 서해가 완벽히 뚫렸다는 안보태세의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TV>

→ 군 당국은 사고직후 가장 빠른 구조수단인 구명헬기를 즉각 출동시키지 않았습다.  
→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습니다.  
→ 이어 "우리 군은 대청해전이라는 조그마한 승리에 도취해 적의 전술적 변화를 미처 감지하지 못했다"고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 서해에선 잠수함이 기동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과 타성에 젖어 군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반성입니다.  
→ 함참에 속해있으면서도 인사권을 쥔 계룡대의 각군 참모총장만 바라보는 일부 장교들의 행태를 지적한 겁니다.

“우리 군은 가라앉은 함미의 위치를 알고도 정작 이틀 동안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해군은 해경보다 42분이나 빨리 도착해 놓고도 속수무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등의 예시문장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군의 대처 자세를 비판하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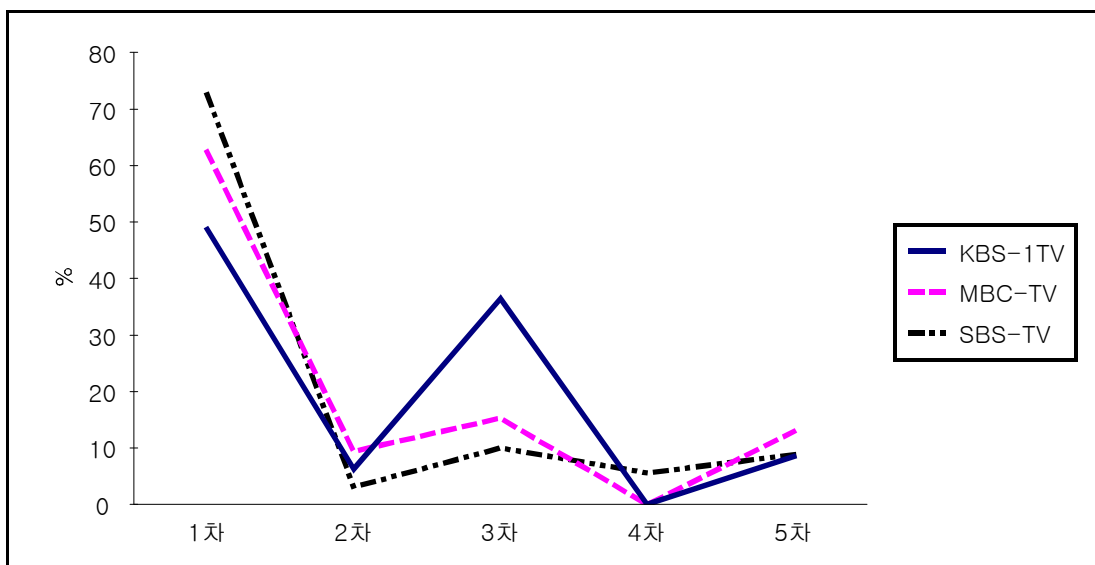
또한 “당일 밤 북한군 정찰기 편대 출격과 잠수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는 등 진상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와 같은 문장이나 “겉으론 합동군이지만 속으론 육해공군의 체 식구 감싸기와 따로따로 행보가 천안함 사건 직후 사실상의 안보공백을 불렀습니다.” 등에서도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에 대해 지적한 문장 등을 확인했다.

<표 7> 책임 문제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책임 문제	92(48.7)	106(62.4)	116(72.5)	314(60.5)
2차. 책임 문제	12(6.3)	16(9.4)	5(3.1)	33(6.4)
3차. 책임 문제	69(36.5)	26(15.3)	16(10.0)	111(21.4)
4차. 책임 문제	0(0)	0(0)	9(5.6)	9(1.7)
5차. 책임 문제	16(8.5)	22(12.9)	14(8.8)	52(10.0)
계	189	170	160	519(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책임 문제 유목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6> 책임 문제 기간별 추이



천안함 침몰 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는 책임 문제 유목 내에서 분석 1차 시기부터 5차 시기까지의 방송사별 기사 문장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그 변화추이는 4차 시기까지 3개 방송사에서 유사했다.

다만, MBC-TV와 SBS-TV에서와는 달리 KBS-1TV의 3차 시기 해당 유목 내 문장 수(69건, 36.50%)가 2차시기(12건, 6.38%)와 비교하여 그 차이의 폭이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분석 4차 시기 이후로는 KBS-1TV와 MBC-TV에서는 해당 유목 내 기사 문장의 수가 다소 증가했으나 SBS-TV에서는 해당 유목 내 기사 문장 수의 증가 폭은 매우 낮았다.

전체 10개의 하부 유목 중 해당 유목 내 포함되는 문장 비중을 각 시기별로 분석하고 이를 방송사별로 비교한 결과 분석 4차 시기까지는 3개 방송사 모두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1차 시기 이후 2차 시기로 들어서면서 비중이 감소했다가 3차 시기에서 그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4차 시기에서 다시 감소하는 유형을 띠고 있다.

이후 5차 시기에서는 KBS-1TV와 MBC-TV의 경우 4차 시기보다 그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SBS-TV에서는 4차 시기에 비해 5차 시기에서 그 비중이 차이가 크지 않았다.

## 6) 정계 동향

정계 동향 유목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정계동향, 해외 동향 및 북한 동향, 정치인들의 책임공방 및 유가족 면담, 처소 방문 등과 관련한 기사문장이 포함되었다.

분석 기간에 따른 정계 동향 유목 내 기사 문장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 5차 시기(3사 통합, 723건)에 가장 그 수가 많았으며 4차 시기에 그 수가 가장 적었다(3사 통합, 315건).

(1) 방송사별 정계 동향 문장 예시

<KBS-1TV>

- 해군 초계함 침몰 소식이 청와대에 보고된 직후인 어젯밤 10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청와대 지하 병커에서 열렸습니다.
- 그동안 군사관련 입장을 대변해온 북한 군사논평원은 북한 매체들을 통해 천안함 침몰이 자신들과 관련됐다는 말은 '날조'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 김형오 의장 등 국회 대표단과 여야 정당 대표들도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경기도 평택 제 2함대 사령부를 찾아 애도했습니다.
- 캠벨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중국 정부와 사전 협의했고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TV>

- 오늘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에서는 실종자들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를 서두르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 청와대는 어젯밤 이후 세 차례 잇따라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 가능성과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을 몰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 미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대응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제 대화에서는 천안함 침몰 사태가 핵심 의제가 됐습니다.

<SBS-TV>

- 한나라당은 이번 사고가 자칫 민심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이번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고 은폐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천안함 다국적 조사단에 중국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조사결과가 나오는데로 이를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미 국무부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중국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설명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계 동향 유목에서는 “해군 초계함 침몰 소식이 청와대에 보고된 직후인 어젯밤 10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청와대 지하 병커에서 열렸습니다.” 등 정부·군 당국의 반응 및 움직임과, “민주당은 사고 진상부터 솔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등 국내 정계 동향, “미 국무부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중국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등 해외 정계 동향, “북한 언론은 아직까지 침몰 사고를 거론하지 않고 있고 남한 언급도 눈에 띄는 보도가 없습니다.” 등 북한의 반응 및 동향 등이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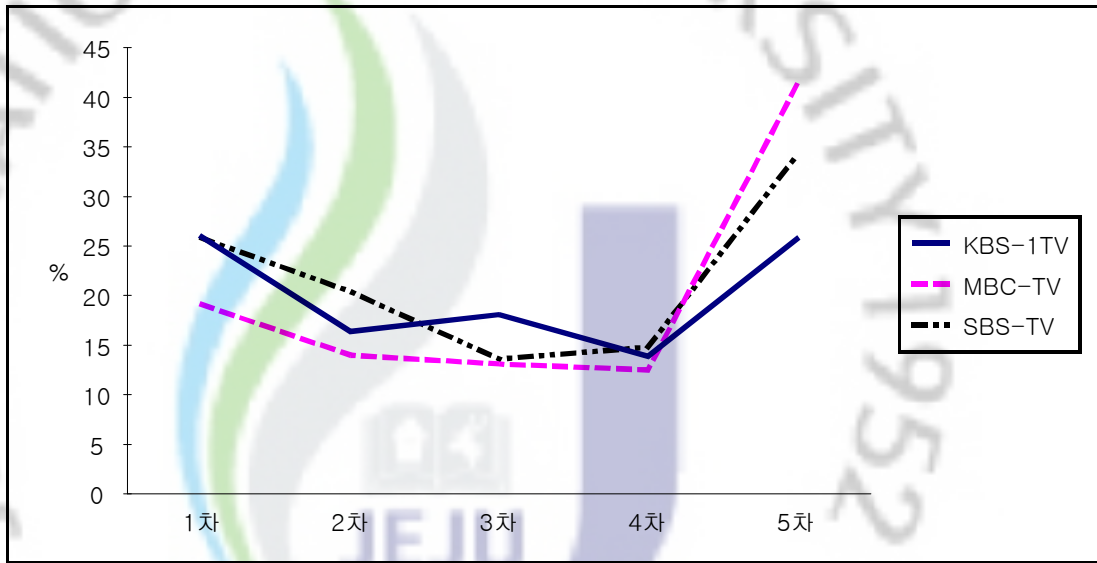
정계 동향의 경우 각 방송사별 두드러진 특성 등은 보이지 않았다.

<표 8> 정계 동향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정계 동향	216(25.9)	130(19.1)	199(25.8)	545(23.5)
2차. 정계 동향	137(16.4)	95(14.0)	157(20.4)	389(16.8)
3차. 정계 동향	151(18.1)	89(13.1)	105(13.6)	345(14.9)
4차. 정계 동향	116(13.9)	85(12.5)	114(14.8)	315(13.6)
5차. 정계 동향	214(25.7)	280(41.2)	229(34.1)	723(31.2)
계	834	679	804	2,317(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정계 동향 유목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7> 정계 동향 기간별 추이



정계 동향 유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천안함 침몰 직후인 1차 시기에서 20~25%의 비중을 차지하다 4차 시기까지는 감소한 후, 천안함 침몰 원인 정부 공식 발표가 있는 후인 5차 시기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방송사 별 특징을 살펴보면, KBS-1TV는 1차 기에서 25.9%의 비중을 차지 2차 시기에서는 16.4%의 비중으로 소폭 감소, 3차 시기에서 다시 18%로 증가, 4차 시기에서 13.9%비중으로 다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3차 시기에서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은 희생자 영결식 진행에 따른 정계 동향이 다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MBC-TV의 경우 1차 시기부터 4차 시기까지는 타사에 비해 가장 낮은 비중으로 정계 동향을 다루다가, 5차 시기에서 41.2%로 타사의 1.5배 정도 높은 비중으로 정계 동향을 다루고 있다.

SBS-TV의 경우 1차 시기부터 3차 시기까지 그 비중이 감소하다가 4차 시기에는 그 비중이 14.8%로 소폭 상승했으며 5차 시기에는 34.1%의 비중을 보였다.

## 7) 차후 대책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의 대응책, 인양일정, 수색계획 등과 관련된 문장이 ‘차

후 대책' 내 유목에 포함된다.

차후 대책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는 5차에 걸친 분석 기간 중 분석 1차 시기(3사 통합, 546건)에 가장 많았으며 분석 4차 시기(3사 통합, 74건)에 가장 적었다. 분석 1차 시기부터 4차 시기까지 점차 감소하다 분석 5차 시기에 와서 문장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5차에 걸친 분석기간 동안, 방송사별로 차후 대책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를 비교한 결과, KBS-1TV(898건)에서 해당 유목 내 기사 문장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SBS-TV(465건), MBC-TV(327건) 순으로 기사 문장 수의 총합이 높았다.

#### (1) 방송사별 차후 대책 문장 예시

##### <KBS-1TV>

- 함미가 마침내 평택 2함대에 도착하게 되면 절단면 등을 중심으로 침몰 원인에 대한 본격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군 당국은 오는 24일까지 인양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작업속도로 봤을 때 앞당겨 질 수도 있습니다.
- 천안함이 어뢰 등 수중무기에 의해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해군 참모총장이 '보복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것입니다.
- 내일은 중국과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30여개 국에 조사결과를 사전 설명하고, 향후 대북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좁혀지는 가운데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무역과 통행 관련 사항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MBC-TV>

- 국방부는 위기관리반을 가동해 내일은 반드시 침몰 함정을 찾아내 수색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 천안함 침몰로 숨진 장병 모두를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예우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 정부가 북한을 3단계로 나눠 점차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 대북 군사조치로서 군 당국은 당장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금지 시

켰습니다.

→ 군은 내일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판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대북 전단지 수십만 장을 북쪽으로 살포할 계획입니다.

#### <SBS-TV>

→ 정부는 내일 오전 9시 정 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선체가 인양되면 군은 함내 수색작업을 통해 실종자 생사를 확인한 뒤 함미를 평택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 한편 오늘(15일) 수습한 시신은 독도함으로 이송돼 영현낭에 안치됐다 다시 헬기를 이용해 2함대 사령부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20일을 전후해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 합동 조사단은 내일 오전 10시 사건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군은 다음 주 함수까지 인양되면 쌍끌이 저인망 어선으로 해저를 훑으면서 파편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같은 문장이나 “사고해역의 기상여건이 좋아지면 잠수사들을 총 투입해 함미 승조원 식당까지 안내용 밧줄을 추가로 연결한 뒤 실종자 탐색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와 같은 문장과 같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행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다룬 문장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 외에도 “신원이 확인되면 군 헬기를 이용해 생존자와 다른 실종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기 성남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됩니다.”와 “천안함 전사자가족 협의회는 희생장병에 대한 장례가 해군 최고의 예우인 '해군장'으로 5일간 치러지며 영결식은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등의 문장에서 실종자 및 유가족 등의 향후 일정 및 입장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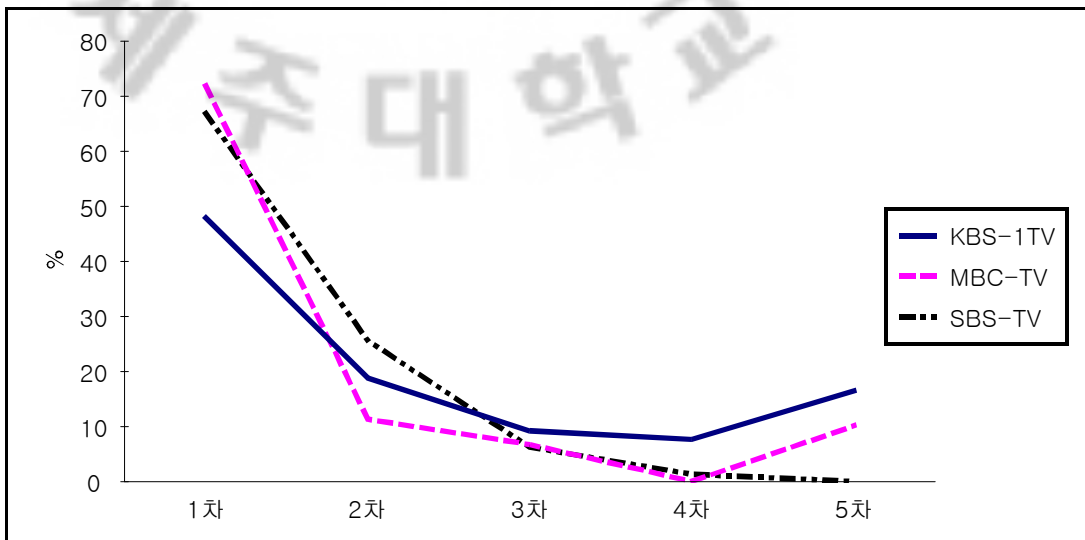


<표 9> 차후 대책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차후 대책	430(47.9)	235(71.9)	311(66.9)	976(57.8)
2차. 차후 대책	169(18.8)	37(11.3)	119(25.6)	325(19.2)
3차. 차후 대책	83(9.2)	22(6.7)	29(6.2)	134(7.9)
4차. 차후 대책	68(7.6)	0(0)	6(1.3)	74(4.4)
5차. 차후 대책	148(16.5)	33(10.1)	0(0)	181(10.7)
계	898	327	465	1,690(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차후 대책 유목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8> 차후 대책 기간별 추이



차후 대책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를 방송사별로 5차에 걸친 분석시기에 따라 그 추이를 분석한 결과 KBS-1TV와 MBC-TV의 경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분석 1차 시기에서 4차 시기로 오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4차 시기에서 5차 시기로 들어서면서 해당 유목 내 기사 문장 수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10개의 하부 유목 중 해당 유목 내 포함되는 문장 비중을 각 시기별로 분석하고 이를 방송사별로 비교한 결과 KBS-1TV에서는 1차 시기(47.9%), 2차 시기(18.8%), 3차 시기(9.2%), 4차 시기(7.6%)까지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 5차 시기(16.5%)에서 그 비중이 큰 차를 보이며 증가함을 확인했다.

MBC-TV에서도 4차 시기까지는 KBS-1TV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체 유목 중 해당 유목 내 기사 문장 비중이 감소했고 5차 시기(10.1%)에서는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나 KBS-1TV에 비해 그 비율의 절대치가 적었다.

SBS-TV에서는 앞선 두 방송사와는 달리 1차 시기(66.9%)에서 5차 시기(0%)까지 전체 10개 하부 유목 중 해당 유목 내 포함된 문장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 8) 사후 영향

사후 영향 유목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한 국내외 사회·경제적 영향과 관련한 기사문장이 포함된다. 분석 기간에 따른 사후영향 유목 내 기사 문장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 5차 시기(3사 통합, 322건)에 가장 그 수가 많았으며 2차 시기에 그 수가 가장 적었다(3사 통합, 27건). 전체 보도 대비 비중은 SBS-TV가 6.0%(292건)로 타사의 2배 정도 높았다.

사후 영향의 경우 각 방송사별 두드러진 특성 등은 보이지 않았음.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한 국제 경제 상황, 지역축제, 지역주민 생활상 등이 보도되었으며,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 이후인 5차시기부터는 정부의 담화발표에 따른 북한의 반응 및 이로 인해 개성공단 관련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루어졌다.

### (1) 방송사별 사후 영향 문장 예시

#### <KBS-1TV>

- 서해의 해군초계함 침몰 소식은 세계 경제의 잣대, 뉴욕증시를 한순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 오후 들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이 가라앉

아 뉴욕증시는 보험권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 한달에 만 5천여 명에 이르던 백령도 관광객은 천안함 사고 이후 10분의 1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 오늘부터 우리나라 전역과 해외공관에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 이처럼 긴장이 높아지자 주문량이 감소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공장가동률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MBC-TV>

→ 사실이라면 경색된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  
 → 금값도 이번 한 주간 수치로는 최고로 폭등해 온스 당 1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 침몰 원인이 조사될 때까지 6자회담 재개 노력을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북핵 6자회담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 교역과 위탁 가공이 전면 중단되면서 우리측 관련 업체들이 당장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SBS-TV>

→ 하지만 어민들은 어젯밤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조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어뢰의) 제조 국가를 추정해도 해당국에서 반발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행위가 6자회담 재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과 인도적 차원의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남북 경제 협력이 사실상 중단되는 셈입니다.  
 → 이 때문에 제주해협에서 한 해 400여 척에 달하는 북한 상선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후 영향 유목 내에서는 “서해의 해군초계함 침몰 소식은 세계 경제의 잣대, 뉴욕증시를 한순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등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적 영향, “한달에 만 5천여 명에 이르던 백령도 관광객은 천안함 사고 이후 10분의 1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4월 초와 중순에 집중돼 있는 남도의 봄꽃 축제 30여 건 대부분이 축소되거나 취소돼 올 봄 지역축제는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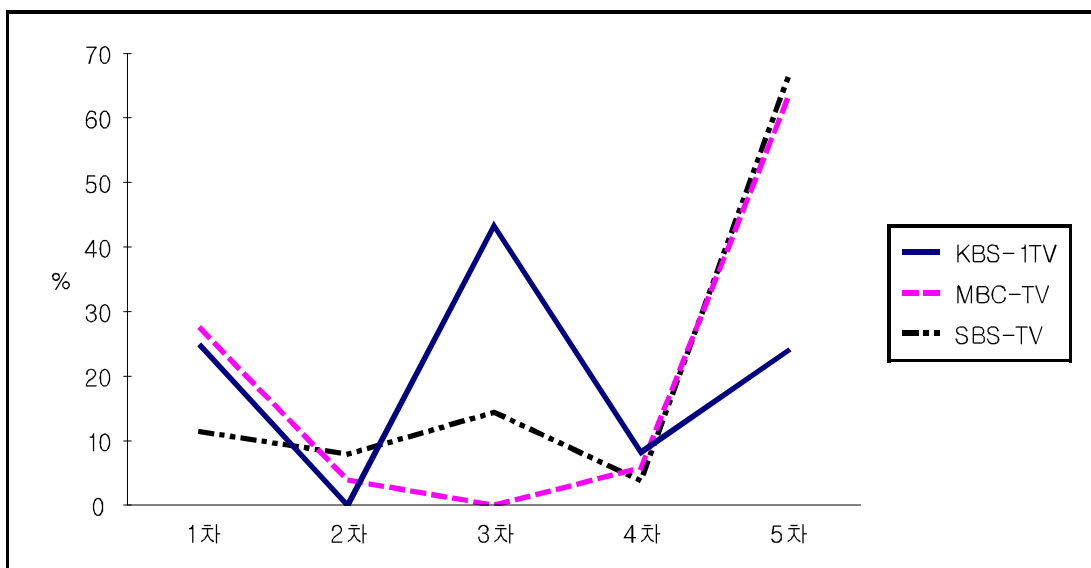
했습니다.” 등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인근지역의 사회적 영향, “60여 단체가 참여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서명운동과 성금모금에 들어갔습니다.” 등 사회적 영향,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 교역과 위탁 가공이 전면 중단되면서 우리측 관련 업체들이 당장 피해를 입게 했습니다.” 등 경제·사회적 영향 등이 다루어졌음을 확인했다.

<표 10> 사후 영향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사후 영향	33(24.6)	42(27.3)	30(10.3)	105(18.0)
2차. 사후 영향	0(0)	6(3.9)	21(7.2)	27(4.7)
3차. 사후 영향	58(43.3)	0(0)	38(13.0)	96(16.6)
4차. 사후 영향	11(8.2)	9(5.8)	10(3.4)	30(5.2)
5차. 사후 영향	32(23.9)	97(63.0)	193(66.1)	322(55.5)
계	134	154	292	580(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사후 영향 유목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9> 사후 영향 기간별 추이



사후 영향 유목의 기간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MBC-TV의 경우 1차 시기에서 27.3%로 시작하여 4차 시기까지는 미미한 비중을 보이다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 공식발표 이후인 5차 시기에서 63.0%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SBS-TV의 경우 이와 비슷하나 3차 시기에서 14.4%로 소폭 증가했다. KBS-1TV의 경우 3차 시기에서 43.3%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차 시기의 사후 영향 유목에서는 서해 NLL부근의 경계 태세, 천안함 재건을 위한 시민들의 모금 참여, 국가 안보의식 관련, 백령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 9) 실종자·유가족 동향

실종자·유가족 동향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는 5차에 걸친 분석 기간 중 분석 1차 시기(3사 통합, 665건)에 가장 많았으며, 분석 5차 시기(3사 통합, 12건)에 가장 적었다. 1차 시기에서 5차 시기로 올수록 해당 유목 내 문장 수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

5차에 걸친 분석기간 동안, 방송사별로 실종자·유가족 동향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를 비교한 결과, SBS-TV(426건)에서 해당 유목 내 기사 문장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KBS-1TV(367건), MBC-TV(292건) 순으로 기사 문장 수의 총합이 높았다.

#### (1) 방송사별 실종자·유가족 동향 문장 예시

##### <KBS-1TV>

- 이번 실종자 명단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박경수 중사가 포함돼 있는데요, 박중사의 가족들은 지난번에도 뒤늦게 생존 상황을 알았다고 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 세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한 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 어머니는 아들의 따뜻한 가슴 대신 차가운 관에 얼굴을 묻고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 차가운 재로 돌아온 아들, 마지막으로 꼭 안고 그래도 고마웠다고 행복했다고 말해줍니다.  
 → 평택 2함대 '해웅사'에서 열린 49제엔 유가족들과 해군 장병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MBC-TV>

→ 저마다 애끓는 사연들, 실종자 가족들은 오열을 참지 못했습니다.  
 → 갑작스런 비보에 병원을 찾은 부인과 딸 등 가족들은 오열했고, 빈소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 일부 가족은 시신 검안을 마치고 나서야 차마 믿기 어려운 죽음을 실감한 듯,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 박보람 하사는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의 수술을 위해 박봉을 털어 백만 원을 마련한 속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 이창기 준위의 영정을 든 최원일 함장의 얼굴에는 회한이 서려 있습니다.

<SBS-TV>

→ 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가족들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는 순간, 애써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 장병 8명. 그 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안아볼 수 있는 다른 유가족들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 오늘 영결식을 끝낸 뒤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이 대통령이 영결식에 참석해 훈장을 추서하며 최고의 예우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 천안함 희생 장병의 유가족들은 오는 7월 초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100일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종자·유가족 동향 유목 내 포함된 문장들에서는 주로 실종자·유가족과 관련한 개인적 사연들을 집중 취재한 기사 문장들이 포함되었다.

“옛새 전 아들의 21번째 생일을 차가운 바다 속에서 보내게 했다는 현실에 어머니는 다시 한 번 가슴이 미어집니다.”와 같은 문장이나 “희생장병들에 대해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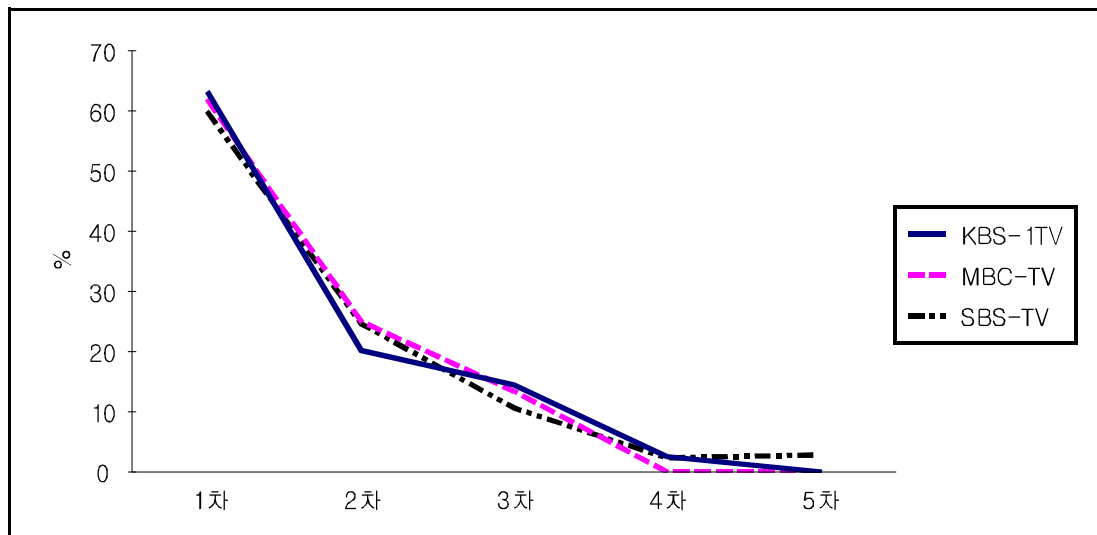
두 한 계급 특진이 추서됐지만, 이미 진급이 예정돼 있었던 고 임재엽 중사.”, 그리고 “그런 남편의 이름을 부르다 지친 아내는 이제 눈물조차 메말라갑니다.” 등의 문장에서 유가족의 애환을 보도한 문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실종자·유가족 동향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실종자·유가족 동향	231(62.9)	180(61.6)	254(59.6)	665(61.3)
2차. 실종자·유가족 동향	74(20.2)	73(25.0)	105(24.6)	252(23.2)
3차. 실종자·유가족 동향	53(14.4)	39(13.4)	45(10.6)	137(12.6)
4차. 실종자·유가족 동향	9(2.5)	0(0)	10(2.3)	19(1.8)
5차. 실종자·유가족 동향	0(0)	0(0)	12(2.8)	12(1.1)
계	367	292	426	1,085(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실종자·유가족 동향 유목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10> 실종자·유가족 동향 기간별 추이



실종자·유가족과 관련한 개인적 사연들을 집중 취재한 기사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실종자·유가족 동향 유목 내 기사 문장 수를 방송사별로 5차에 걸친 분석

시기에 따라 그 추이를 분석한 결과 3개 방송사에서 유사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3개 방송사 모두에서 분석 1차 시기에서 5차 시기로 오면서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실종자·유가족 동향의 경우 해당 유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실종자·유가족과 관련한 개인적 사연들을 집중 취재한 기사 문장"으로 내렸으며 개인적 사연이나 소식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코딩되었다.

다만, MBC-TV의 경우 분석 4차 시기와 5차 시기 모두에서 해당 유목 내 문장 수가 0건이었으며, KBS-TV는 5차 시기에 0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경우는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시기 내 실종자·유가족과 관련한 개인적 사연들을 집중 취재한 기사 문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BS-TV에서는 분석 4차 시기에서 5차 시기로 오면서 그 문장 수가 2건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

전체 10개의 하부 유목 중 해당 유목 내 포함되는 문장 비중을 각 시기별로 분석하고 이를 방송사별로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3개 방송사 모두에서 3차 시기까지는 실종자·유가족 동향에 대해 5~10% 내외의 비중으로 다루고 있었으나 4차 시기 이후에는 그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

## 10) 기타

기타 유목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나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쓰인 기사 중 위 유목에 해당되지 않는 문장, 국민 및 네티즌의 여론 등의 기사문장이 포함된다. 단,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성이 심히 적다고 판단되는 기사 및 문장은 삭제하여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석 기간에 따른 기타 유목 내 기사 문장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 3차 시기(3사 통합, 555건)에 가장 그 수가 많았으며, 4차 시기에 그 수가 가장 적었다(3사 통합, 2건). 전체 보도 대비 비중은 KBS-1TV(826건, 11.6%)가 월등히 높았으며, MBC-TV(183건, 3.6)가 가장 낮았다.

기타 유목의 경우 천안함 침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나, 2002년 참수리호 인양사례, 한준호 준위 사망 원인 및 보상 문제, 우리나라 군 시스템, 국군수도 병원의 시설, 서해교전 등 주변 지식들을 다루고 있었다.



(1) 방송사별 기타 문장 예시

<KBS-1TV>

- 국군수도병원은 해군과 공군, 육군 등 3군의 의무지원체계를 통합한 국군 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군 병원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 깊은 바다에서 작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김상협 기자가 실험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 <녹취> 전우영(와부초 6학년) : "우리 동해, 서해, 남해를 지켜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군대에서 배 이름을 지으라 하면 천안함 2호라 지을 거예요."
- 아직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글은 사실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갖가지 억측을 키우고 있습니다.
- KBS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무력도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세계 미디어 대표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MBC-TV>

- 천안함 사망 장병 38구의 시신이 안치된 평택 2함대에 오늘 저녁 대형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 이렇게 거칠고 굵은 날씨였지만, 오늘도 전국 곳곳의 분향소엔,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 천안함 희생장병 46명의 영결식이 오늘 해군장으로 엄수됐습니다.
-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치러진 영결식을 뒤로 하고, 천안함 46 용사의 영현과 영정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도착했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천안함 희생 장병과 관련해 답지한 성금이 35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TV>

- 김학송 국회국방위원장은 어제(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이 파악한 북한 잠수함 이동 경로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 실종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29억여 원을 자체 모금했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도 시민들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천안함가'가 울려 퍼지자 영정을 든 장병들의 눈시울이 더욱 뜨거워져 보였습니다.

→ 영혼이 이승에서 마지막 머무는 날, 극락왕생을 비는 49재가 평택 2함대의 해공사 법당에서 거행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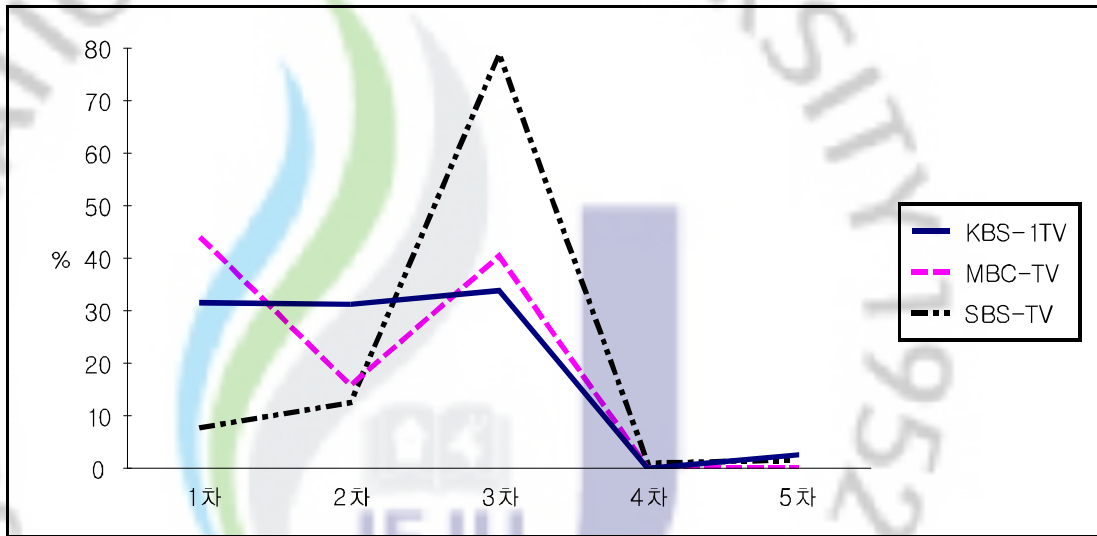
기타 유목에서는 “국군수도병원은 해군과 공군, 육군 등 3군의 의무지원체계를 통합한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군 병원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수온 4도의 하더라도 바닷물에 1시간만 머물러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탈북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탈북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협박 게시문이 실렸습니다.” 등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한 소식이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배경지식, 주변사건 등에 대한 기사문장들과, “인터넷에는 수만 개의 추모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이버 분향소에도 추모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 사건 관련한 국민적 여론 및 추모 분위기 등이 다루어졌음을 확인했다.

<표 12> 기타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기타	260(31.5)	80(43.7)	20(7.8)	360(28.2)
2차. 기타	258(31.2)	29(15.8)	32(12.5)	319(25.0)
3차. 기타	279(33.8)	74(40.4)	202(78.9)	555(43.5)
4차. 기타	0(0)	0(0)	2(1.0)	2(0.2)
5차. 기타	29(2.51)	0(0)	11(1.6)	40(3.1)
계	826	183	267	1,276(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기타 유목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11> 기타 기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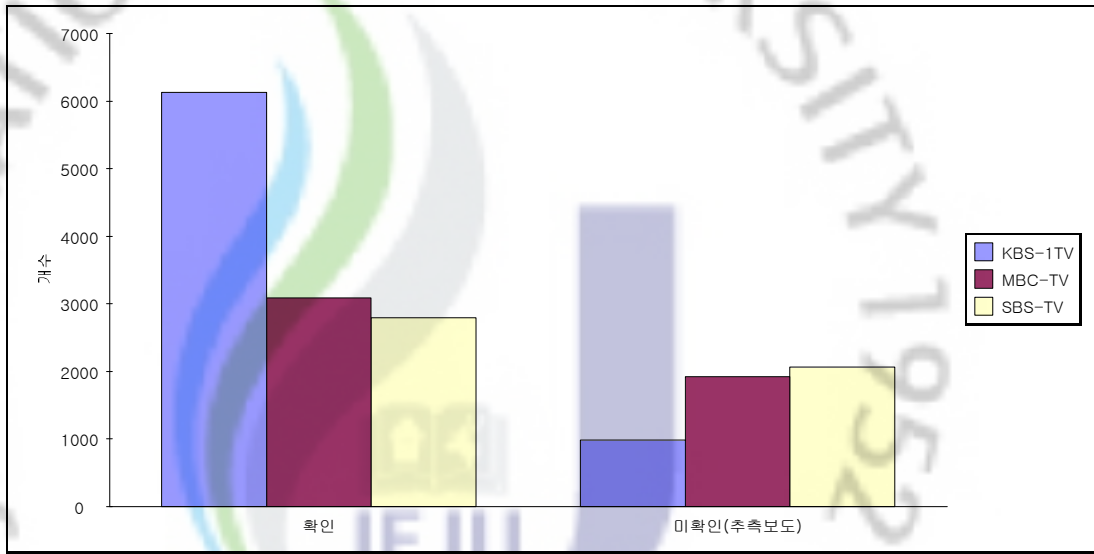
기타 항목의 경우 KBS-1TV는 1차 시기부터 3차 시기까지 약 30%로 꾸준한 비중을 보이다 합동조사단 조사활동 이후인 4차 시기 이후부터 급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MBC-TV의 경우 1차 시기와 3차 시기에서 약 40%의 비중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극히 미미한 비중을 보였고, SBS-TV의 경우 3차 시기에서 7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적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었다. 3차 시점에서 기타 유목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이 시기에 진행된 희생자 영결식 관련하여 국민들의 추모열기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 3. 사실 확인 유무

<표 13> 사실 확인/미확인 보도문장 전체 통계

	KBS-1TV	MBC-TV	SBS-TV	통합
확인	6,132(86.1)	3,093(61.6)	2,795(57.5)	12,020(70.7)
미확인(추측보도)	989(13.9)	1,968(38.4)	2,070(42.5)	5,027(29.3)
계	7,121	5,061	4,865	17,047(100)

<그림 12> 사실 확인/미확인 보도문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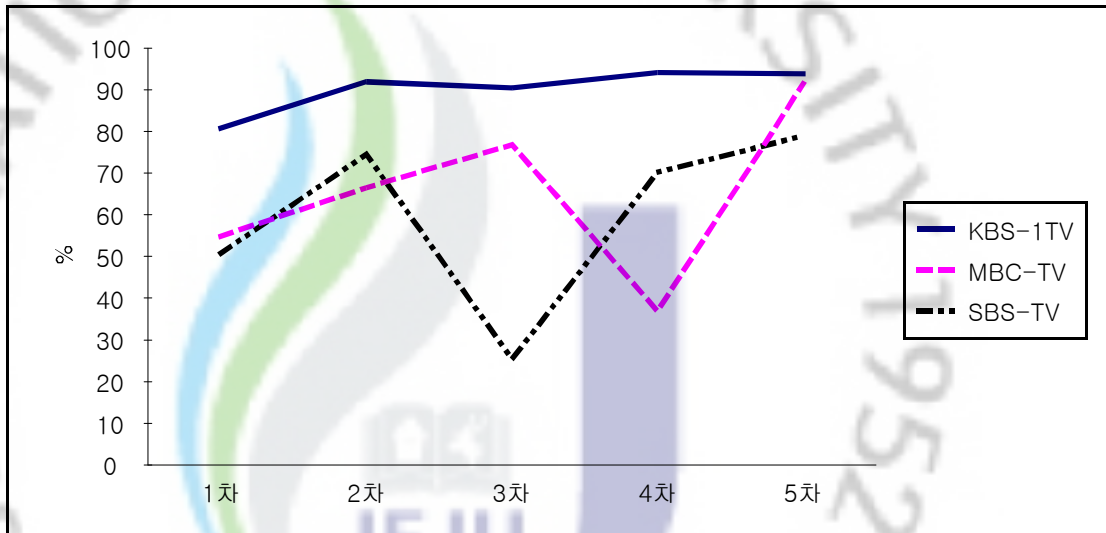
확인 유무에 따라 각 방송사에서 방송된 문장 수를 분류한 결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의 비중은 KBS-1TV (6,132건, 86.1%), MBC-TV (3,093건, 61.6%), SBS-TV (2,795건, 57.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사실 확인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확인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3,043(80.8)	1,665(54.9)	1,240(50.8)	5,948(49.5)
2차	1,434(91.9)	563(66.5)	676(74.5)	2,673(22.3)
3차	781(90.4)	327(76.8)	157(25.4)	1,265(10.5)
4차	288(94.1)	104(36.9)	153(70.2)	545(4.5)
5차	586(93.8)	434(91.4)	569(78.9)	1,589(13.2)
계	6,132	3,093	2,795	12,020(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사실 확인된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13> 사실 확인 보도문장 기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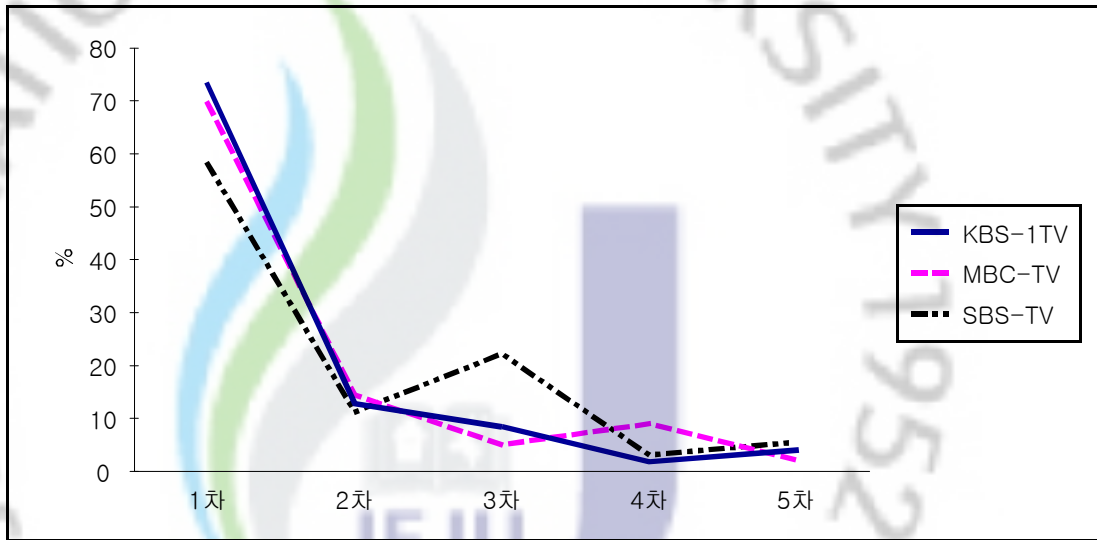


<표 15> 사실 미확인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미확인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722(73.0)	1,367(69.5)	1,200(58.0)	3,289(65.4)
2차	127(12.8)	283(14.4)	231(11.2)	641(12.8)
3차	83(8.4)	99(5.0)	460(22.2)	642(12.8)
4차	18(1.8)	178(9.0)	65(3.1)	261(5.1)
5차	39(4.0)	41(2.1)	114(5.5)	194(3.9)
계	989	1,968	2,070	5,027(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사실 확인이 안 된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14> 사실 미확인 보도문장 기간별 추이



KBS-1TV의 경우 전체 문장 중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의 비중이 분석 2차 시기(91.9%)에서 3차 시기(90.4%)로 넘어가는 시점에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보도 비중이 증가했다.

MBC-TV의 경우에는 전체 문장 중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의 비중이 분석 3차 시기(76.8%)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분석 4차 시기에 와서 전체 중 36.9%의 문장만이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으로 나타났다. 이후 5차 시기에는 434건 91.4%의 비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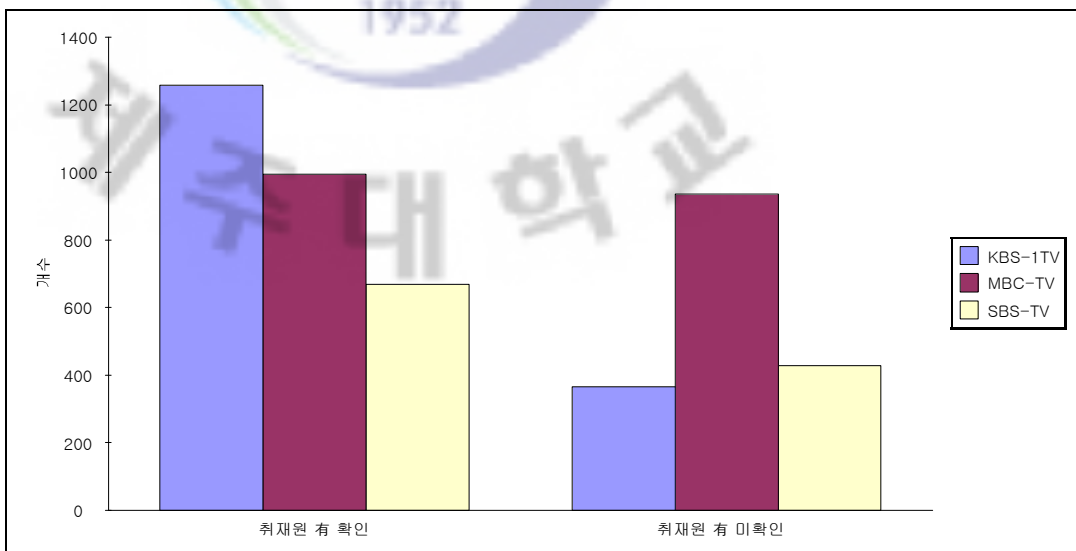
SBS-TV의 경우에는 전체 문장 중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의 비중이 분석 2차 시기(74.5%)까지 증가하다가 분석 3차 시기에 와서 전체 중 25.4%의 문장만이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으로 나타났다. 이후 4차 시기(70.2%)와 5차시기(78.9%)에 다시 꾸준히 비중이 증가했다.

#### 4. 취재원이 있는 경우

<표 16> 취재원 인용시 사실 확인/미확인 전체 통계

	KBS-1TV	MBC-TV	SBS-TV	통합
취재원 有 확인	1,258(77.5)	994(51.5)	668(60.9)	2,920(62.8)
취재원 有 미확인	366(22.5)	936(48.5)	429(39.1)	1,731(37.2)
계	1,624	1,930	1,097	4,651(100)

<그림 15> 취재원 인용시 사실 확인/미확인 비교



취재원에게 취재를 하는 경우, 취재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비율은 KBS-1TV의 경우 77.5% 대 22.5%, MBC의 경우 51.5% 대 48.5%, SBS의 경우 60.9% 대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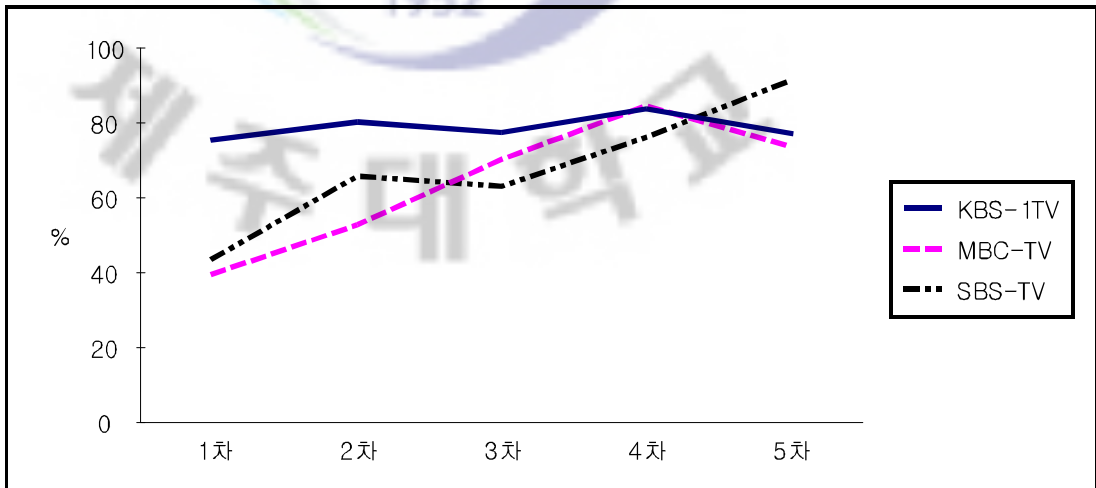
취재원의 발언에 있어 사실적 정보를 가장 많이 포함한 방송사는 KBS-1TV(77.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재원의 발언이 추측성을 가장 많이 띠는 방송사는 MBC-TV(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취재원 인용시 사실 확인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취재원 有 확인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611(75.7)	453(39.7)	198(43.8)	1,262(43.2)
2차	285(80.3)	142(52.8)	129(65.8)	556(19.1)
3차	186(77.5)	128(70.3)	99(63.1)	413(14.1)
4차	57(83.8)	170(84.6)	125(76.2)	352(12.1)
5차	119(77.3)	101(73.7)	117(91.4)	337(11.5)
계	1,258	994	668	2,920(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취재원 인용이 있으면서 사실 확인이 된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16> 취재원 인용시 사실 확인 기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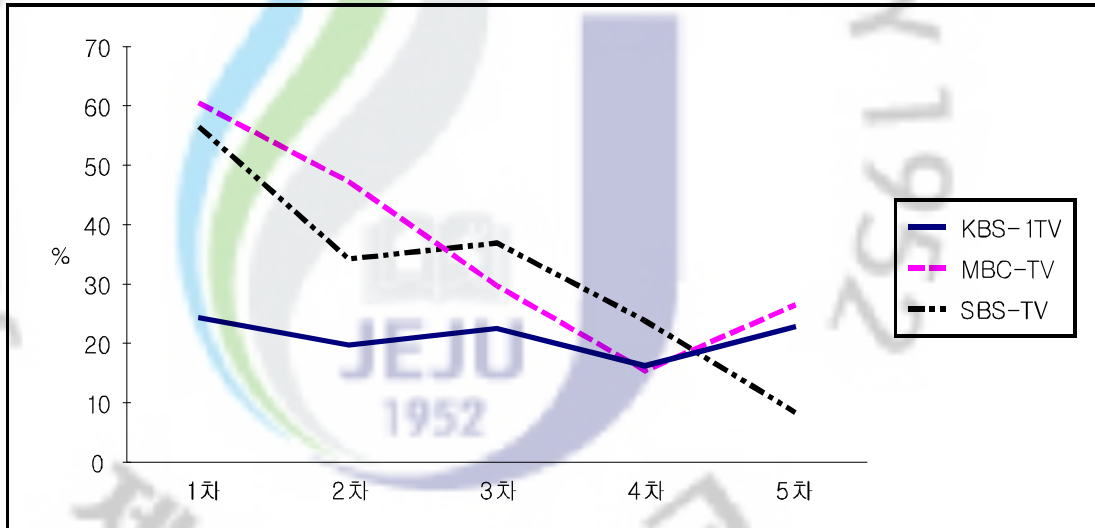
<표 18> 취재원 인용시 사실 미확인 보도문장 기간별 현황

취재원 有 미확인	KBS-1TV	MBC-TV	SBS-TV	통합
1차	196(24.3)	688(60.3)	254(56.2)	1,138(65.7)
2차	70(19.7)	127(47.2)	67(34.2)	264(15.3)
3차	54(22.5)	54(29.7)	58(36.9)	166(9.6)
4차	11(16.2)	31(15.4)	39(23.8)	81(4.7)
5차	35(22.7)	36(26.3)	11(8.6)	82(4.7)
계	366	936	429	1,731(100)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차수별 분석기간 내 기사문장 중에서 전체 기사문장 대비 취재원 인용이 있으면서 사실 확인이 안 된 기사문장의 비율을 나타냄.)

<그림 17> 취재원 인용시 사실 미확인 기간별 추이



기사작성에 있어서 취재원을 인용했을 경우 중 사실 확인이 된 경우는 3사 모두 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이 시작된 4차 시기와 천안함 침몰 원인 정부 공식 발표가 있는 5차 시기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천안함 침몰당시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보도되다가 정식으로 원인조사를 하고 결과 발표가 이뤄지면서 점차 사실 확인된 보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전문가, 군 관계자, 정계인사, 관련 주민 등 취재원의 발언에도 점차 추측성이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작성에 있어서 취재원을 인용했을 경우 중 사실 확인이 안 된 경우는 3사 모두 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이 시작된 4차 시기와 천안함 침몰 원인 정부 공식 발표가 있는 5차 시기를 향해 꾸준히 하강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KBS-1TV의 경우 정부의 공식발표 전과 후의 사실 확인·미확인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5. 유목별 사실 확인 여부

<표 19> 유목별 사실 확인/미확인 전체 통계

		KBS-1TV	MBC-TV	SBS-TV	통합
1. 사건행위	확인	2,085(90.4)	1,148(64.5)	699(66.1)	3,917
	미확인	222(9.6)	633(35.5)	359(33.9)	1,214
		2,307(100)	1,781(100)	1,058(100)	5,131
2. 사건묘사	확인	300(88.8)	325(89.8)	308(77.8)	926
	미확인	38(11.2)	37(10.2)	88(22.2)	155
		338(100)	362(100)	396(100)	1,081
3. 방송사의견	확인	36(29.5)	32(25.0)	96(27.0)	154
	미확인	86(70.5)	96(75.0)	259(73.0)	422
		122(100)	128(100)	355(100)	576
4. 원인규명	확인	737(66.6)	348(37.4)	205(32.3)	1,231
	미확인	369(33.4)	582(62.6)	429(67.7)	1,378
		1,106(100)	930(100)	634(100)	2,609
5. 책임문제	확인	150(79.4)	79(46.5)	54(33.8)	278
	미확인	39(20.6)	91(53.5)	106(66.3)	234
		189(100)	769(100)	160(100)	512
6. 정계동향	확인	727(87.2)	468(68.9)	645(79.5)	1,804
	미확인	107(12.8)	211(31.1)	166(20.5)	479
		834(100)	679(100)	811(100)	2,283
7. 차후대책	확인	808(90.0)	198(60.6)	205(44.1)	1,211
	미확인	90(10.0)	129(39.4)	260(55.9)	479
		898(100)	327(100)	465(100)	1,690

8. 사후영향	확인	123(91.8)	100(64.9)	220(75.3)	422
	미확인	11(8.2)	54(35.1)	72(24.7)	129
		134(100)	154(100)	292(100)	551
9. 실종자· 유가족 동향	확인	360(98.1)	241(82.5)	399(93.7)	999
	미확인	7(1.9)	51(17.5)	27(6.3)	85
		367(100)	292(100)	426(100)	1,084
10. 기타	확인	806(97.6)	140(76.5)	261(97.8)	1,196
	미확인	20(2.4)	43(23.5)	6(2.2)	69
		826(100)	183(100)	267(100)	1,265
계		7,121	5,006	4,864	16,782

각각의 하위 유목 내에서 방송사에 따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수와 미확인 사실의 문장수가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실 그 자체나 혹은 사건을 재구성한 문장이 포함된 ‘사건 행위’ 유목 내에서 사실에 근거한 확인 문장과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추측성 사건 재구성 문장의 비율을 방송사별로 비교했다.

‘사건 행위’ 유목 내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이 KBS-1TV에서는 90.4%, MBC-TV에서 64.5%, SBS-TV에서는 66.1%로 나타났다.

‘사건 묘사’ 유목 내에서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수의 비율을 방송사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KBS-1TV와 MBC-TV가 근소한 차를 보였으며 SBS-TV에서 확인된 문장수의 비중이 3사 중에서 가장 낮았다. KBS-1TV에서 88.8%, MBC-TV에서는 89.8%, SBS-TV에서는 77.8%를 차지했다.

‘방송사 의견’ 유목 내에서는 미확인 문장 수의 비중이 KBS-1TV 70.5%와 MBC-TV는 75.0%, SBS-TV 73.0%로 모두 미확인 문장 수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 방송사 간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다.

‘원인 규명’ 유목 내에서는 KBS-1TV와 MBC-TV, SBS-TV 간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은 KBS-1TV의 경우 전체 문장수의 66.6%를 차지한 반면 MBC-TV는 37.4%, SBS-TV의 경우 32.3%로 나타나 확인

사실 문장수의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룬 ‘책임 문제’ 유목 내에서도 KBS-1TV와 MBC-TV, SBS-TV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의 경우 KBS-1TV에서는 79.4%를 차지, MBC-TV는 46.5%, SBS-TV는 33.8%를 차지했다. MBC-TV와 SBS-TV의 경우에는 미확인 사실 문장수가 확인 사실 문장 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확인 사실 문장의 경우 SBS-TV에서 66.3%, MBC-TV에서 53.5%, KBS-TV에서는 그 비중이 20.6%를 차지하여 특징적이다.

‘정계 동향’ 유목 내에서는 KBS-1TV에서의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 비율이 MBC-TV와 SBS-TV 내에서의 확인된 문장 비율에 비해 높았다.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의 경우 KBS-1TV에서는 전체 문장의 87.2%, SBS-TV에서는 79.5%, MBC-TV에서는 68.9%로 나타났다.

‘차후 대책’ 유목 내에서 사실에 근거한 확인 문장과 사실 미확인 문장의 비율을 방송사별로 살펴본 결과, 방송사 간 확인된 문장수의 비율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이 KBS-1TV에서는 90.0%를 차지했고, MBC-TV에서는 60.6%로 나타났다. SBS-TV에서는 KBS-1TV, MBC-TV와 달리 미확인 문장의 비율이 확인된 문장의 비율보다 더 높았는데 SBS-TV에서의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 비율은 44.1%를 차지했다.

‘사후 영향’ 유목 내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문장의 비중은 KBS-1TV 91.8%, SBS-TV 75.3%, MBC-TV 64.9% 순으로 확인되었다.

실종자·유가족과 관련한 개인적 사연들을 집중 취재한 기사 문장이 포함된 ‘실종자 유가족 동향’ 유목 내에서는 3사 모두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의 비중이 비교적 높음을 확인했다. 그 순서는 KBS-1TV(98.1%), SBS-TV(93.7%), MBC-TV(82.5%) 순이었다.

## V. 결론

###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를 중심으로 그 기사문장의 유목을 분류하고 기사 문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지상파 방송 3사 보도 경향을 살피고자 했다.

연구문제 1의 주제별 보도문장의 방송사별 차이점을 살펴보면, 조사기간 중 천안함 사건 관련 총보도문장수 16,995건 중 KBS-1TV 7,121건, MBC-TV 5,020건, SBS-TV 4,854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 3사를 통틀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보도문장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실적 행위자체, 경위 등을 서술한 '사건 행위' 유목이며 다음으로는 '원인 규명', '정계 동향'과 관련된 보도문장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세 가지 유목이 전체 보도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방송 3사 모두에서 많이 다루어진 상위분류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차이점을 살펴보면, KBS-1TV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차후 대책'과 국민 여론 등이 포함된 '기타' 유목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던 반면, '사건 묘사' 유목의 비중이 타사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MBC-TV는 '사건 행위', '원인 규명', '책임 문제' 유목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SBS-TV는 '사건 묘사', '방송사 의견', '정계 동향' 등이 타사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또한 분석기간 내에서 방송 3사 모두 '사건 행위', '사건 묘사' 등의 비율은 감소추세로 나타난 반면, '원인 규명', '책임 문제', '정계 동향', '차후 대책', '사후 영향' 등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 발생 초반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 3사 모두가 사건 발생 자체와 사건 현장 묘사, 사건 원인에 대한 추측 또는 예측성 보도를 집중적으로 방송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방송사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2의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방송 3사의 보도문장의 내용이 사실을

확인한 뒤 방송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의 비중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1TV가 86.1%로 가장 높았으며 MBC-TV 61.6%, SBS-TV 57.5% 순으로 나타났다. 5차에 걸친 분석기간 동안 방송사에 따라 그 비중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분석 1차 시기에서 5차 시기로 오면서 즉 사건 발생 이후 시일이 지날수록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문장 비율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1의 천안함 침몰 사건 보도시 취재원 또는 출처의 근거와 발언내용을 확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취재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비율은 방송사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취재원의 발언에 있어 사실적 정보를 가장 많이 포함한 방송사는 KBS-1TV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재원의 발언이 추측성을 가장 많이 띠는 방송사는 MBC-TV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사에서는 기사 내용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취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취재원조차 특정 원인 가능성에 대하여 “그럴 가능성이 있다” 등 추측성 발언을 하고, 방송사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이를 사실로 오인시킬 위험이 있으며 추측보도를 더욱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방송사들은 불확실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유언비어가 발생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도검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5차에 걸친 분석시기별로 취재원을 인용했을 경우의 기사 문장들을 분석한 결과,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이 시작된 4차 시기와 천안함 침몰 원인 정부 공식 발표가 있었던 5차 시기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천안함 침몰당시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보도되다가 정식으로 원인조사를 하고 결과 발표가 이뤄지면서 점차 사실이 확인된 보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실종자·유가족과 관련한 개인적 사연들을 집중 취재한 기사 문장들을 실종자·유가족 동향 유목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서는 관련 기사 문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분석 5차 시기로 오면서 해당 유목 내 문장 수가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그 내용 또한 실종자·유가족의 개인적 사연에 관한 것이 다수 관찰되었는데, 일부는 재난의 본질과 관계없는 흥미

성 신상공개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지상과 방송 3사 메인 뉴스의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3사의 재난보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아울러, 천안함 침몰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사고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지상과 메인 뉴스와 보도내용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자칫 속보경쟁으로 인한 추측보도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대형 사건·사고> 또는 <재해·재난보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의 부재는 추측보도나 오보를 양산시켜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보도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고 한국 언론의 수준과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향후 국내 보도 프로그램에서의 <대형 사건·사고> 와 <재해·재난보도>에 대한 지침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2.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지상과 방송 3사 메인뉴스 보도에서 다루어진 대략적인 보도 주제 및 기사 문장의 수량 및 비중, 보도 내용의 사실 확인 여부, 취재원 발언 인용의 사실 확인 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써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보도 행태를 분석하고자 했다. 따라서 한 가지 협소한 주제를 시간적 추이에 따라 살펴본 것이 아니므로, 특정 주제에 대한 사실판단 근거로서 정부공식발표 전후 관계를 개별적으로 각각 확인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는 당시의 상황과 기사 문장 자체를 살폈을 때 확정된 사실이 아닌 추측성을 띠고 있는 문장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문장에 대하여 사실 미확인된 문장이라고 판단했다.

본 연구는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모든 기사 문장을 원인 규명 유목에 포함하였으므로, 어느 방송사에서 어떤 침몰 원인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한계점으로 남는다.

## □ 참고문헌

- 고승일(1995). 재난보도 전문화 방안 / 재난보도 백서를 만들자 / 재난보도. 신문과방송, 제297호.
- 김동규(2002). 한국 언론의 위기보도, 그 실상과 과제 - 재난, 전쟁, 테러 및 갈등 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 p.139.
- 김만재(2005). 자연재난 보도의 특성 분석: 태풍 루사의 사례 연구. 한국방재학회지 5(3), pp. 1-9.
- 김성재(2003).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재난보도 방향. 방송연구 여름호. pp. 89~112.
- 김영욱(2003). 대구지하철 참사 보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시스템이 아닌 인재로 돌리는 것은 곤란. 신문과방송, 제388호.
- 김옥태, 김규찬(2010).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의 예방위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4권 6호, pp. 344~367.
- 김정탁(1995). '알 권리' 보다는 '살 권리'가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 대한 언론의 보도. 저널리즘 비평 16, pp.46-52.
- 김재범·문성철(2010). 천안함 사태 언론보도 진단과 개선방안 : 국가안보와 언론 자유. 한국언론학회. pp. 6~7.
- 도형래(2010). 서해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방송3사의 보도분석. 한국방송학회 2010 봄철 정기학술대회. pp. 11~13.
- 박동균(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본 재난보도의 문제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5호. pp. 241~248.
- 박은희 외(1995). 삼풍 사고와 TV보도. 한국방송개발원 현안연구 95-2.
- 송종길(2003). 대구 지하철 화재관련 뉴스보도 분석. 방송문화 262호. pp. 16~21.
- 심훈(2005). '쓰나미'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이야기 구조 서사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6호, pp. 286~313.
- 유세경, 정지인, 이석(2010). 미국과 중국 일간지의 '천안함 침몰 사건' 뉴스 보도 비교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제16호, pp. 105~141.



- 유홍식(2003).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방송저널리즘 윤리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방송 연구 여름호. pp. 61~87.
- 이경미, 최낙진(2008). 태풍 '나리'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 언론정보 연구 제45권 제1호, pp. 97~129.
- 이경자(1995). 재난보도의 문제와 과제. 신문과방송, 제297호.
- 이병중(1995). 외국언론이 본 한국언론 / 삼풍 보도에서 확인된 이상한 언론. 신문과방송 제296호.
- 이성림(1996). 재난보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삼풍백화점 붕괴관련 TV 뉴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2009). 재난과 재난방송시스템에 관한 연구, 방송공학회지, 제14권 제4호, pp. 33~44.
- 이창현·김성준(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언론 보도 내용분석 연구.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심층세미나.
- 임양준(2010). 용산사태에 대한 일간신문의 뉴스보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제 54권 1호, pp. 337~361.
- 임태섭(2003). 보도언어 이대로 좋은가: 언론의 과장표현 관행 어디까지. 신문과 방송 390.
- 장원일(2005). 재해방송의 효율적인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연구(1995). 재난보도 준칙 마련의 필요성 / KBS를 상시 방재기관으로. 신문과 방송, 제297호.
- 최경진(2003). 대구지하철 참사 보도: 보도검증. 국내 방송 소홀, NHK나 CNN으로 봐야만 하는가.. 신문과 방송 통권 제388호. pp. 112~115.
- 한국방송개발원(1996). 방송의 사회적 위기보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6-08.

□ 웹 페이지 참고자료

PD저널. <OBS ‘실종자 시신발견’ 오보 논란> 2010년 04월 01일. 김도영 기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20#>

PD저널. <OBS ‘천안함 실종자 시신발견’ 정정보도> 2010년 04월 06일. 김도영

기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73>

세계일보. <[세계광장] ‘백 선장 오보’의 악몽을 기억하는가>. 2010년 04월 01일.

박희준 사회부 차장.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00401](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00401004255&cid=)

[004255&cid=](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00401004255&cid=)